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永同郡本 ㉡吉同郡

景德王改名今因之

영동군(永同郡)은 본래 길동군(吉同郡)인데 경덕왕이 이름을 고쳤으며, 지금 이를 그대로 쓰고 있다.

(나)善化公主主隱

㉢他密只嫁良置古

薯童房乙

夜矣卯乙抱遺去如

선화 공주님은

늬 그스지 얼어 두고

맛등바을

밤애 몰 안고 가다. -“삼국유사(三國遺事)” 권 제2

1. (가)의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과 ㉡은 읽을 때 각기 다른 발음으로 읽었을 것이다.
- ② ㉠과 ㉡은 고유명사를 두 가지 방식으로 표기한 것이다.
- ③ ㉠과 ㉡으로 보아 고유어의 사용이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 ④ ㉠은 한자의 음을 ㉡은 한자의 뜻을 빌려 우리말을 표기한 것이다.
- ⑤ ㉠과 ㉡은 고대시대 백성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한 표기법이다.

2. (나)의 표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 ① 1행에서 두 번째 主는 뜻을 빌려 표기하였다.
- ② 1행의 陰과 4행의 矣는 문법적 기능이 같다.
- ③ 3행의 乙과 4행의 乙은 모두 음을 빌려 표기하였다.
- ④ 4행의 去, 如는 뜻을 빌려 표기하였다.
- ⑤ 薯童과 같은 고유명사는 모두 한자의 뜻을 빌려 표기했다.

3. 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민요가 정착된 4구체 향가이다.
- ② 참요(讖謠)적 성격의 노래이다.
- ③ 체념적 운명관이 바탕에 깔려 있다.
- ④ 현재 전하는 향가 중 가장 오래된 작품이다.
- ⑤ 선화공주에 대한 서동의 연모의 정을 노래하고 있다.

4. (나)의 ㉢에서 음을 빌려 표기한 한자(漢字)를 모두 쓰시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善化公㉣主㉤主隱

선화 공주님은

他密只嫁良置古

남몰래 결혼해 두고

薯童房乙

맛등서방을

夜矣卯乙抱遺去如

밤에 몰래 안고 간다.

5. 글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향가의 표기 문자인 향찰은 국어 문장 전체를 적을 수 있다는 점에서 고유 명사 표기법과는 차이를 보인다.
- ② 향찰은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우리말의 형태와 의미 요소를 전면적으로 기록한 표기 체계로서 신라인들은 이것을 우리말로 읽지 않고 한자로 읽었다.
- ③ 배경 설화가 있는, 4구체 형식의 향가로서 참요(讖謠)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 ④ 국적과 신분을 넘어 낭만적이고 적극적인 애정관을 표출하고 있다.
- ⑤ 선화공주에 대한 서동의 잠재적 갈망을 주객을 전도시켜 표현하고 있다.

6. (가)의 ㉣과 ㉤의 한자 차용 방식의 차이점을 비교하여 30자 이내로 서술하시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善化公主主隱	선화 공주님은
①他密只嫁良置古	남몰래 결혼해 두고
②薯童房乙	맛등서방을
夜矣③卯乙抱遺④去如	밤에 몰래 안고 간다.

7. (가)의 ㉠~㉣ 중 ‘隱’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것은?

- ① ㉠ ② ㉡ ③ ㉢ ④ ㉣ ⑤ ㉤

8. (1) (가)에 쓰인 표기 체계를 쓰고, (2) 그 밖에 다른 차자 표기 체계를 3가지 쓰시오.

- (1): _____
(2): _____, _____, _____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善化公主主①隱	선화 공주님은
②他密只嫁良③置古	남몰래 결혼해 두고
薯童房乙	맛등서방을
④夜矣卯乙⑤抱遺去如	밤에 몰래 안고 간다.

9. ㉠~㉤ 중 한자 차용 방식이 다른 것은?

- ① ㉠ ② ㉡ ③ ㉢ ④ ㉣ ⑤ ㉤

10. <보기>의 밑줄 친 부분의 관점에서 위 작품을 감상했을 때, 제기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질문은?

<보기>
문학 작품을 바라보는 관점은 크게 <u>내재적 관점</u> 과 <u>외재적 관점</u> 으로 나눌 수 있다. 내재적 관점은 문학 작품 자체만을 바라보는 관점이고 외재적 관점은 문학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하여 바라보는 관점이다.

- ① 노래의 길이나 운율적인 면에서 봤을 때 쉽게 퍼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② 노래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볼 때, 허구적인 내용을 널리 퍼뜨린 목적이 무엇일까?
③ 당시 노래를 부른 계층을 봤을 때 동요적인 성격이 강해, 그것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일까?
④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실제 역사적으로 존재하는 인

물들이었다고 해. 작품이 지어진 역사적 배경은 어떠했을까?

- ⑤ 한자로 되어 있는 원문을 우리말로 해석한 자료를 보면 한자의 음을 빌린 부분, 뜻을 빌린 부분이 모두 있어. 당시에 지어진 다른 작품들은 어떨까?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善化公主主隱	선화 공주님은
他密只嫁良置古	남몰래 결혼해 두고
薯童房乙	맛등서방을
夜矣卯乙抱遺去如	밤에 몰래 안고 간다.

11. 아래 표를 보고, 주어진 질문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 (1) 밑줄 친 부분에서 음으로 읽은 곳을 찾아 한글로 쓰시오.

- (2) ‘隱’의 문법적 기능에 대해 30자 내외로 서술하시오.

12. <보기>는 위 작품의 배경 설화 중 일부이다. 이를 바탕으로 위 작품의 특징을 파악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보기>
백제 30대 무왕(武王)의 이름은 장(璋)이다. 그의 어머니가 못가에 살고 있었는데, 그 못에 사는 용(龍)과 정을 통하여 장을 낳았다. 장은 어려서부터 마[薯]를 캐어 팔아서 생활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서동이라고 불렀다. 서동은 신라 진평왕(眞平王)의 셋째 딸인 선화 공주가 아름답다는 말을 듣고 경주로 갔다. 동네 아이들에게 마를 먹이니, 아이들이 친해져서 따르게 되었다. 이에 동요(童謠)를 지어 여러 아이들을 꾀어서 부르게 하였다. 이 노래가 온 경주에 퍼져 대궐에까지 알려지니, 백관(百官)이 임금에게 극간(極諫)하여, 공주를 먼 곳으로 귀양 보내게 하였다. 장차 떠나려 할 때, 왕후(王后)가 순금 한 말을 노자로 주었다. 공주가 귀양처로 가는데, 서동이 도중에서 나와 맞이하여 시위(侍衛)하여 가고자 하였다. 공주는 그가 어디서 온지는 모르나, 믿고 기뻐하여 그를 따르게 되었다. 그 후에야 서동의 이름을 알고 동요의 내용이 그대로 맞은 것을 알았다. (후략)

- ① 민요의 형식으로, 동요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다.
② 서동에 의해 창작된 것으로, 개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③ 노래의 내용은 사실이 아닌 거짓을 나타냈다는 점에서 모함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④ 서동의 출생 등에서 영웅의 면모가 나타난다는 점에서 의

滿開(만개) : 꽃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식요로서의 성격을 볼 수 있다.

- ⑤ 노래를 지어 부르고 나서 실제로 노래의 내용과 같이 되었다는 점에서 주술성이 나타난다.

13. 위 노래의 표기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 ① 한문의 어순을 따르고 있다.
 ② 고려 시대에 창작된 4구체 향가이다.
 ③ 한자로 우리말 문장을 완벽하게 표기할 수 있었다.
 ④ 한자의 음과 뜻을 선택적으로 빌려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⑤ 당시의 사람들은 한자로 쓴 것을 보고 중국어로 읽었을 것이다.

14. 다음은 한자를 이용한 국어식 표기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한자를 빌려서 적은 차자 표기(借字表記)로는 한문을 국어의 어순에 맞추어 다시 배열한 (㉠)와(과), 문장의 일부를 한자를 빌려서 적은 (㉡)이(가) 있다. 또 한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한문 구절 중간 중간에 토를 달아 우리말식으로 읽는 (㉢)이(가) 있다.

	㉠	㉡	㉢
①	구결(口訣)	서기체(誓記體)	이두(吏讀)
②	서기체(誓記體)	구결(口訣)	이두(吏讀)
③	서기체(誓記體)	이두(吏讀)	구결(口訣)
④	구결(口訣)	서기체(誓記體)	이두(吏讀)
⑤	이두(吏讀)	구결(口訣)	서기체(誓記體)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善化公㉠主㉡主隱	선화공주님은
他密只嫁良置古	남 몰래 결혼하고
薯童房乙	맛둥서방을
夜矣卯乙抱遣去如	밤에 몰래 안고간다.

15. ㉠과 ㉡의 쓰임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 것은?

- ① ㉠과 ㉡은 한자의 음만 취해서 표기한 것이다.
 ② ㉠과 ㉡은 한자의 뜻만 취해서 표기한 것이다.
 ③ ㉠과 ㉡은 둘 다 한자의 음과 뜻을 모두 취해서 표기한 것이다.
 ④ ㉠은 한자의 뜻을 취하고, ㉡은 한자의 음을 취해서 표기한 것이다.
 ⑤ ㉠은 한자의 음을 취하고, ㉡은 한자의 뜻을 취해서 표기한 것이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선화공주님은	善化公主主隱
()	㉠他密只嫁良置古
맛둥서방을	薯童房乙
밤에 몰래 안고 간다.	夜矣卯乙抱遣去如

16. ㉠을 (1) 현대어로 풀어 쓰고, (2) 훈독(訓讀)한 한자를 모두 찾아 쓰시오.

- (1) 현대어 풀이 :
 (2) 훈독한 한자 :

17. (가)에 대한 독자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국경과 신분을 초월한 사랑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낭만적 사랑의 노래라고 생각해.
 ② 창작 동기를 고려해 본다면, 타인을 모함할 의도로 지어진 일종의 참요(讖謠)라 할 수 있겠어.
 ③ 서동의 계략은 끝내 행복한 결말을 맞게 된다는 점에서 ‘고진감래(苦盡甘來)’라는 인생의 교훈이 생각나게 하는군.
 ④ 이 노래에 나타난 것처럼 공주와 서동의 공공연한 사랑은 당대 성 풍속의 타락상이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어.
 ⑤ 서동 자신의 사랑의 소망을 선화 공주에게 전가시켜 표현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주객전도(主客顛倒)’의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셈이야.

18. (가)와 <보기> 시의 공통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주빛 바위 가에	紫布岩乎 _乙 寸 希
잡고 있는 암소를 놓게 하시고,	執音乎手母牛放教遣

滿開(만개) : 꽃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나를 아니 부끄러워하시면 吾恥不喻慚伊賜等
꽃을 꺾어 바치오리다 花勝折叱可獻乎理音如

- ① 추모(追慕)의 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② 구애(求愛)를 목적으로 한 노래이다.
- ③ 주술적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 ④ 불가능을 가능으로 과장시켜 표현하고 있다.
- ⑤ 가정과 도치의 시상 전개 방식을 드러내고 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永同郡本 ㉡吉同郡

景德王改名今因之

영동군(永同郡)은 본래 길동군(吉同郡)인데 경덕왕이 이름을 고쳤으며, 지금 이를 그대로 쓰고 있다.

(나)善化公主主隱

㉢他密只嫁良置古

薯童房乙

夜矣卯乙抱遺去如

선화 공주님은

늬 그스지 얼어 두고

맛등바을

밤애 몰 안고 가다. -“삼국유사(三國遺事)” 권 제2

19. (가)의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과 ㉡은 읽을 때 각기 다른 발음으로 읽었을 것이다.
- ② ㉠과 ㉡은 고유명사를 두 가지 방식으로 표기한 것이다.
- ③ ㉠과 ㉡으로 보아 고유어의 사용이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 ④ ㉠은 한자의 음을 ㉡은 한자의 뜻을 빌려 우리말을 표기한 것이다.
- ⑤ ㉠과 ㉡은 고대시대 백성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한 표기법이다.

20. (나)의 표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 ① 1행에서 두 번째 主는 뜻을 빌려 표기하였다.
- ② 1행의 陰과 4행의 矣는 문법적 기능이 같다.

- ③ 3행의 乙과 4행의 乙은 모두 음을 빌려 표기하였다.
- ④ 4행의 去, 如는 뜻을 빌려 표기하였다.
- ⑤ 薯童과 같은 고유명사는 모두 한자의 뜻을 빌려 표기했다.

21. 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민요가 정착된 4구체 향가이다.
- ② 참요(讖謠)적 성격의 노래이다.
- ③ 체념적 운명관이 바탕에 깔려 있다.
- ④ 현재 전하는 향가 중 가장 오래된 작품이다.
- ⑤ 선화공주에 대한 서동의 연모의 정을 노래하고 있다.

22. (나)의 ㉢에서 음을 빌려 표기한 한자(漢字)를 모두 쓰시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善化公㉣主㉤主隱

선화 공주님은

他密只嫁良置古

남몰래 결혼해 두고

薯童房乙

맛등서방을

夜矣卯乙抱遺去如

밤에 몰래 안고 간다.

23. 글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향가의 표기 문자인 향찰은 국어 문장 전체를 적을 수 있다는 점에서 고유 명사 표기법과는 차이를 보인다.
- ② 향찰은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우리말의 형태와 의미 요소를 전면적으로 기록한 표기 체계로서 신라인들은 이것을 우리말로 읽지 않고 한자로 읽었다.
- ③ 배경 설화가 있는, 4구체 형식의 향가로서 참요(讖謠)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 ④ 국적과 신분을 넘어 낭만적이고 적극적인 애정관을 표출하고 있다.
- ⑤ 선화공주에 대한 서동의 잠재적 갈망을 주객을 전도시켜 표현하고 있다.

24. (가)의 ㉣과 ㉤의 한자 차용 방식의 차이점을 비교하여 30자 이내로 서술하시오.

滿開(만개) : 꽃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善化公主主隱	선화 공주님은
②他密只嫁良置古	남몰래 결혼해 두고
③薯童房乙	맛둥서방을
夜矣④卯乙抱遣⑤去如	밤에 몰래 안고 간다.

25. (가)의 ㉠~㉤ 중 ‘隱’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것은?

- ① ㉠ ② ㉡ ③ ㉢ ④ ㉣ ⑤ ㉤

26. (1) (가)에 쓰인 표기 체계를 쓰고, (2) 그 밖에 다른 차자 표기 체계를 3가지 쓰시오.

- (1): _____
(2): _____, _____, _____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善化公主主②隱	선화 공주님은
①他密只嫁良③置古	남몰래 결혼해 두고
薯童房乙	맛둥서방을
④夜矣卯乙⑤抱遣去如	밤에 몰래 안고 간다.

27. ㉠~㉤ 중 한자 차용 방식이 다른 것은?

- ① ㉠ ② ㉡ ③ ㉢ ④ ㉣ ⑤ ㉤

28. <보기>의 밑줄 친 부분의 관점에서 위 작품을 감상했을 때, 제기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질문은?

<보기>
문학 작품을 바라보는 관점은 크게 <u>내재적 관점</u> 과 <u>외재적 관점</u> 으로 나눌 수 있다. 내재적 관점은 문학 작품 자체만을 바라보는 관점이고 외재적 관점은 문학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하여 바라보는 관점이다.

- ① 노래의 길이나 운율적인 면에서 봤을 때 쉽게 퍼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② 노래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볼 때, 허구적인 내용을 널리 퍼뜨린 목적이 무엇일까?
③ 당시 노래를 부른 계층을 봤을 때 동요적인 성격이 강해, 그것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일까?

- ④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실제 역사적으로 존재하는 인물들이었다고 해, 작품이 지어진 역사적 배경은 어떠했을까?
⑤ 한자로 되어 있는 원문을 우리말로 해석한 자료를 보면 한자의 음을 빌린 부분, 뜻을 빌린 부분이 모두 있어. 당시에 지어진 다른 작품들은 어떨까?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善化公主主隱	선화 공주님은
他密只嫁良置古	남몰래 결혼해 두고
薯童房乙	맛둥서방을
夜矣卯乙抱遣去如	밤에 몰래 안고 간다.

29. 아래 표를 보고, 주어진 질문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 (1) 밑줄 친 부분에서 음으로 읽은 곳을 찾아 한글로 쓰시오.
(2) ‘隱’의 문법적 기능에 대해 30자 내외로 서술하십시오.

30. <보기>는 위 작품의 배경 설화 중 일부이다. 이를 바탕으로 위 작품의 특징을 파악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보기>
백제 30대 무왕(武王)의 이름은 장(璋)이다. 그의 어머니가 못가에 살고 있었는데, 그 못에 사는 용(龍)과 정을 통하여 장을 낳았다. 장은 어려서부터 마[薯]를 캐어 팔아서 생활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서동이라고 불렀다. 서동은 신라 진평왕(眞平王)의 셋째 딸인 선화 공주가 아름답다는 말을 듣고 경주로 갔다. 동네 아이들에게 마를 먹이니, 아이들이 친해져서 따르게 되었다. 이에 동요(童謠)를 지어 여러 아이들을 꾀어서 부르게 하였다. 이 노래가 온 경주에 퍼져 대궐에까지 알려지니, 백관(百官)이 임금에게 극간(極諫)하여, 공주를 먼 곳으로 귀양 보내게 하였다. 장차 떠나려 할 때, 왕후(王后)가 순금 한 말을 노자로 주었다. 공주가 귀양처로 가는데, 서동이 도중에서 나와 맞이하여 시위(侍衛)하여 가고자 하였다. 공주는 그가 어디서 온지는 모르나, 믿고 기뻐하여 그를 따르게 되었다. 그 후에야 서동의 이름을 알고 동요의 내용이 그대로 맞은 것을 알았다. (후략)

- ① 민요의 형식으로, 동요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다.
② 서동에 의해 창작된 것으로, 개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③ 노래의 내용은 사실이 아닌 거짓을 나타냈다는 점에서 모함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滿開(만개) : 꽃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 ④ 서동의 출생 등에서 영웅의 면모가 나타난다는 점에서 의식요로서의 성격을 볼 수 있다.
- ⑤ 노래를 지어 부르고 나서 실제로 노래의 내용과 같이 되었다는 점에서 주술성이 나타난다.

31. 위 노래의 표기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 ① 한문의 어순을 따르고 있다.
- ② 고려 시대에 창작된 4구체 향가이다.
- ③ 한자로 우리말 문장을 완벽하게 표기할 수 있었다.
- ④ 한자의 음과 뜻을 선택적으로 빌려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 ⑤ 당시의 사람들은 한자로 쓴 것을 보고 중국어로 읽었을 것이다.

32. 다음은 한자를 이용한 국어식 표기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한자를 빌려서 적은 차자 표기(借字表記)로는 한문을 국어의 어순에 맞추어 다시 배열한 (㉠)와(과), 문장의 일부를 한자를 빌려서 적은 (㉡)이(가) 있다. 또 한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한문 구절 중간 중간에 토를 달아 우리말식으로 읽는 (㉢)이(가) 있다.

	㉠	㉡	㉢
①	구결(口訣)	서기체(誓記體)	이두(吏讀)
②	서기체(誓記體)	구결(口訣)	이두(吏讀)
③	서기체(誓記體)	이두(吏讀)	구결(口訣)
④	구결(口訣)	서기체(誓記體)	이두(吏讀)
⑤	이두(吏讀)	구결(口訣)	서기체(誓記體)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善化公㉠主㉡隱 선화공주님은
 他密只嫁良置古 남 몰래 결혼하고
 薯童房乙 맛둥서방을
 夜矣卯乙抱遣去如 밤에 몰래 안고가다.

33. ㉠과 ㉡의 쓰임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 것은?

- ① ㉠과 ㉡은 한자의 음만 취해서 표기한 것이다.
- ② ㉠과 ㉡은 한자의 뜻만 취해서 표기한 것이다.
- ③ ㉠과 ㉡은 둘 다 한자의 음과 뜻을 모두 취해서 표기한 것이다.
- ④ ㉠은 한자의 뜻을 취하고, ㉡은 한자의 음을 취해서 표기한 것이다.
- ⑤ ㉠은 한자의 음을 취하고, ㉡은 한자의 뜻을 취해서 표기한 것이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선화공주님은 善化公主主隱
 () ㉠他密只嫁良置古
 맛둥서방을 薯童房乙
 밤에 몰래 안고 간다. 夜矣卯乙抱遣去如

34. ㉠을 (1) 현대어로 풀어 쓰고, (2) 훈독(訓讀)한 한자를 모두 찾아 쓰시오.

- (1) 현대어 풀이 :
- (2) 훈독한 한자 :

35. (가)에 대한 독자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국경과 신분을 초월한 사랑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낭만적 사랑의 노래라고 생각해.
- ② 창작 동기를 고려해 본다면, 타인을 모함할 의도로 지어진 일종의 참요(讖謠)라 할 수 있겠어.
- ③ 서동의 계략은 끝내 행복한 결말을 맞게 된다는 점에서 ‘고진감래(苦盡甘來)’라는 인생의 교훈이 생각나게 하는군.
- ④ 이 노래에 나타난 것처럼 공주와 서동의 공공연한 사랑은 당대 성 풍속의 타락상이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어.
- ⑤ 서동 자신의 사랑의 소망을 선화 공주에게 전가시켜 표현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주객전도(主客顛倒)’의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셈이야.

36. (가)와 <보기> 시의 공통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주빛 바위 가에 紫布岩乎 寸 希

滿開(만개) : 꽃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잡고 있는 암소를 놓게 하시고, 執音乎手母牛放教遣
나를 아니 부끄러워하시면 吾恥不喻慚伊賜等
꽃을 꺾어 바치오리다 花勝折叱可獻乎理音如

- ① 추모(追慕)의 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② 구애(求愛)를 목적으로 한 노래이다.
- ③ 주술적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 ④ 불가능을 가능으로 과장시켜 표현하고 있다.
- ⑤ 가정과 도치의 시상 전개 방식을 드러내고 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世·생 宗·종 御·영 製·정 訓·훈 民·민 正·정 音·음
나·랏:말·쯔·미 中·중 國·국·에 달·아, 文·문 字·자·와 ·로 서·르 스
몫·디 아·니 홀·씩, ·이·런 전·전·로 어·린 百·백 姓·성·이 나·르
고·져 ·흥·배 이·셔·도, 只·츄:내 제 ·쁘·들 사·려 꺾·디 :몬
흥 ·노·미 하 ·나·라. 내 ·아·를 爲·왕·하·야 :어·옛·비 나·겨, ·
새·로 ·스·물·여·들 字·자·를 鳴·ᄃ노·니 :사·름:마 ·다 :히·여 :
수·비 나·겨 ·날·로 攄·메 便·변 安·안·하·리 高·고·져 흥 ·썩·르·미·나·
라.

37. 위 글과 현대국어의 음운, 의미상의 차이점을 설명한 것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 ① 어옛비 : ‘불쌍히’에서 ‘예쁘게’로 뜻이 바뀌었다.
- ② 어린 : ‘어리석은’에서 ‘나이가 적은’으로 뜻이 바뀌었다.
- ③ 스몫디 : ‘통하지’란 뜻으로 8중성법에 의거하여 표기하였다.
- ④ 꺾디 : 현대국어에서 구개음화현상이 나타난 ‘꺾지’로 바뀌었다.
- ⑤ 攄메 : 현대국어의 ‘쓰메, 사용함에’에 해당되며, 사동접사 ‘우’를 사용하였다.

38. 다음은 위 글에서 언급한 ·스·물·여·들 字·자·에 대한 설명이다. 빈칸에 알맞은 말(㉠~㉤는 아라비아 숫자로 쓸 것)을 쓰시오.

·스·물·여·들 字·자·란 자음 (㉠)자, 모음 (㉡)자를 말한다. 이 중 (㉢)자가 소실되어 현재는 (㉣)자이다.
소실된 자모는 (㉤)이다.
한글은 상형(象形)의 원리를 기본으로 하여 기본자를

먼저 만들고, 이에 획을 더하는 가획(加畫)의 원리와 문자를 합하는 합용(合用)의 원리에 의하여 창제되었다. 자음의 기본자는 발음하는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든 (㉠)이다.

모음은 우주의 기본 요소를 상형한 (㉡)을 기본자로 하여 초출, 재출, 합용의 원리를 적용하여 만들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강촌(江村)

물근 ㄹ몫 흥 고·빅 ㅁ술홀 아나 흐르느니
긴 녀·몫 江村(강촌)에 일·마·다 幽深(유심)ᄃ도·다.
절로 가며 절로 오느니 집우·헛 저비오
서·르 親(친)ᄃ며 서·르 갓·갑·느·니 물 가·운·딛 굴·며·기·로·다.
늘·근 겨·지·븐 죠·히·를 그·려 장·기·파·늘 鳴·굴·어·늘
저·른 아·드·른 바·느·를 두·드·려 고·기 ㄴᄃᄃ ㄴᄃᄃ 鳴·ᄃᄃ·다.
㉠한 病(병)에 얻·고·져 흥는 바·느 오·직 藥·物(약물)이·니
저·구·맛 모·미 아· ㅂᄃᄃ ㄷᄃᄃ 求(구)ᄃ리·오.

39. 글 (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맞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 ①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와 같은 표현법이 있다.
- ② “대동강 물이야 언제 마르리. 해마다 이별 눈물 보태는 것들”과 같은 표현법이 있다.
- ③ “강물 푸르니 새는 더욱 희고, 산 푸르니 꽃은 불타는 듯 하구나. 올봄도 보는 가운데 또 지나가니, 어느 해에나 고향에 돌아갈고”와 같은 표현법이 있다.
- ④ “아~~님은 갔습니다. 그러나 난 님을 보내지 않았습니 다.”와 같은 표현법이 있다.
- ⑤ 이글에는 안분지족(安分知足)과 물아일체(物我一體)로 표현하기에 맞는 내용이 있다.

40. 위 글 (가)의 밑줄 친 ㉠에 나타난 화자의 삶의 태도와 가장 유사한 것을 고르시오.

- ① 보리밥 푼나물을 알마초 머근 後에,
바윗궂 물가의 슬카지 노니노라.
그 나른 녀나른 일이야 부를줄이 이시랴.
- ② 냇가에서 있는 백로야! 무슨 일로 서 있느냐?
사심 없이 노니는 저 고기를 엿보아서 무엇 하려느냐?
이무리 생각해 보아도 다 같이 한 물에 살고 있는 입장인,
아예 잊어버리고 내버려두는 것이 어땠겠는가?

滿開(만개) : 꽃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 ③ 한 손에 막대를 쥐고 또 한 손에는 가시를 쥐고
늪은 길을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을 막대로 치려했더니
백발이 제가 먼저 알고서 지름길로 오는구나.
- ④ 연못에 비 뿌리고 버드나무에 안개 끼었는데
사공은 어디 가고 빈 배만 매어 있고
해질 무렵에 짝 잃은 갈매기는 오락가락 하는구나.
- ⑤ 므쇠로 한쇼를 디여다가 므쇠로 한쇼를 디여다가
털슈산(鐵樹山)에 노호이다. 그 쇠 털초(鐵草)를 머거아
그 쇠 털초(鐵草)를 머거아 유덕(有德)호신 님 여히으와지
이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나 · 랫:말쑥 미 中庭國 · 꺾 · 에 달 · 아 ㉠文文字
· 鐘 · 와 · 로 서로 스뭇 · 디 아 · 니홀 · 썩 · 이련 전 ·
츠 · 로 어 · 린 百 · 帛姓 · 성 · 이 니르 · 고 · 저 · 홀 ·
배이 · 셔 · 도 므 · 춤:내 제 · ㅼ · 들 시 · 러 퍼 · 디:몬
홀 · 노 · 미 · 하 · 니 · 라 ㉡ · 내 · 이 · 를 爲 · 왕 · 흥 ·
야 : 어엿 · 비 너 · 겨 · 새 · 로 ㉢ · 스 · 물여 · ㉣字 ·
鐘 · 를 땡 · ㅁ노 · 니 ㉤ : 사름:미 · 다 : 히 · ㅼ : 수 ·
비 니 · 거 · 날 · 로 · ㅼ · 메 使 ㉥安한 · ㉦히 · 고 · 저홀
ㅼ르 · 미니 · 라

—‘훈민정음언해’, 세조 5년(1459)

(나) 물근 ㅁ를 혼 고빅 ㅁ술홀 아나 흐르느니,
긴 ㉠녀를 江村(강촌)에 일마다 幽深(유심)호도다.
절로 가며 절로 오느니 집 우헛 저비오.
서르 親(친)호며 서르 갓갑느니 물 가운데 굴머기로다
늘근 겨지븐 죠히를 그려 장귀파늘 땡골어늘
저문 아드른 바늘 두드려 고기 낫글 낙술 땡ㅁ다.
한 病(병)에 엇고져 호는 바는 오직 藥物(약물)이니,
저구맛 ㉡모미 이 밧기 다시 므스글 求(구) 호리오.

清江一曲抱村流
長夏江村事事幽
自去自來堂上燕
相親相近水中鷗
老妻畫紙爲碁局
稚子敲針作釣鉤
多病所須唯藥物
微軀此外更何求

—‘분류두공부시언해(分類杜工部詩諺解)’ 초간본 권 제7

(다) 불:회기 · 폰 ㉠남 · ㉡보르 · 매 아 · 니:뵐 썩 곳 :
도 · 코 ㉢여 · ㉣름 · 하느 · 니
:식 · 머기 · 폰 · ㅁ · 른 · ㅁㅁ래 아 · 니그 · ㅅ · ㅅ:내
· 히이 · 러비 · 르 · 래 · 가느 · 니

—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제2장)

41. (나)시에 대한 설명이 바르지 않은 것은?

- ① 4단 구성과 선경후정(先景後情)의 시상전개
- ② 원경(遠景)에서 근경(近景)으로의 시선이동
- ③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모습
- ④ 자연귀의와 은둔사상
- ⑤ 묘사에 의한 회화(繪畵)적 심상

42. (나)의 ㉠녀를과 (다)의 ㉢여름의 현대어의 의미를 각각 쓰시오.

㉠ : _____

㉢ : _____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물근 ㅁ를 혼 고빅 ㉠ㅁ술홀 아나 흐르느니,
긴 녀를 ㉡강촌(江村)에 일마다 幽深(유심)호도다.
절로 가며 절로 오느니 집 우헛 저비오.
서르 親(친)호며 서르 갓갑느니 물 가운데 굴머기로다.
늘근 겨지븐 죠히를 그려 ㉢장귀파늘 땡골어늘,
저문 ㉣아드른 바늘 두드려 고기 낫글 낙술 땡ㅁ다.

한 病(병)에 엇고져 호는 바는 오직 藥物(약물)이니,
저구맛 모미 이 밧기 다시 므스글 求(구)호리오.

— “분류두공부시언해(分類杜工部詩諺解)”

초간본 권 제7, 성종 12년(1481년)

43. 위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함련과 미련의 대구(對句)를 통해 시의 묘미를 더하고 있다.
- ② 원근법을 사용하여 시선이 먼 곳에서 가까운 곳으로 이동하고 있다.
- ③ 7언 율시로 훈민정음 창제 이후 간행된 최초의 번역 시집에 실려 있다.
- ④ 현상의 관찰을 제시한 후 시적 화자의 심회를 표출하는

滿開(만개) : 꽃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선경후정(先景後情)의 구조를 갖추고 있다.

- ⑤ 수련과 함련에서는 자연사를, 경련과 미련에서는 인간사를 노래하여 자연사와 인간사를 대비시키고 있다.

44. ㉠~㉢ 표기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을 쓰고, 그 현상에 대해 설명하시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물근 ㅁ궡 혼 고빅 ㅁ궡홀 아나 흐르느니,
긴 녀궡 江村(강촌)에 일마다 幽深(유심)흐도다.
절로 가며 절로 오느니 집 우헛 저비오,
서르 親(친)흐며 서르 갓잡느니 ㅁ궡 가운데 ㅁ궡 굴며기로드.
늘근 겨지븐 죠희를 그려 장괴파늘 ㅁ궡 굴어늘,
저믄 아드룬 바느를 두드려 고기 낫굴 낙술 ㅁ궡 ㅁ궡다.
㉠한 病(병)에 엇고져 혼는 바느 오직 藥物(약물)이니,
저구맛 모미 이 ㅁ궡 다시 ㅁ궡 求(구)흐리오.

- “분류두공부시언해(分類杜工部詩諺解)”
초간본 권 제7, 성종 12년(1481년)

45. 위 시와 <보기>의 글을 읽고, 표기상의 차이점을 두 가지 찾아 서술하시오.

<보기>

나랏:말싸미中庭國에달아文문字:중와로서르스뭇디아니홀.
싸이런전:초로아린百百姓:성이니르:고저홍배아셔:도만:춤:내제:
쁘:들사:러퍼:디:몸홀:노미하나라내아:를爲:왕:하야:어엿비너겨:
새로:스물여:똥字:중:를망:ㅁ궡노니:사름:마다:하야:수비나겨:날로:
뿌매便便안한피하:고저홍색르미나라

- ‘훈민정음(訓民正音) 언해’, 세조 5년(1459년)

46. ㉠에서 나타나는 삶의 태도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동기로 세 몸 되어 한 몸같이 지내다가
두 아운 어디 가서 돌아올 줄 모르시고,
날마다 석양 문외에 한숨 겨워 하노라.
② 구레 버슨 천리마(千里馬)를 뒤라셔 잡아다가
죵죽 슬든 쿵을 슬지게 머겨둔들
본성(本性)이 외양(外樣)하거니 이실 줄이 이시랴.
③ 우레ㅁ궡치 소르나는 님을 번기궡치 번뜻 만나

비궡치 오락가락 구름궡치 헤어지니
흉중(胸中)에 ㅁ궡궡궡 혼숨이 안기 궡궡 혼여라.
④ ㅁ궡방석(方席) 내지 마라, 낙엽(落葉)엔들 못 안즈랴.
술불 혀지 마라, 어제 진 ㅁ궡 도다온다.
아히야, 박주산채(薄酒山菜)르망정 업다 말고 내여라.
⑤ 청산(靑山)은 엇데하야 만고(萬古)에 프르르며,
유수(流水)는 엇데하야 주야(晝夜)에 궡디 아니느고,
우리도 그치디 말아 만고상청(萬古常靑)호리라.

47. 위 시와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나라히 파망(破亡)흐니 ㅁ궡 ㅁ궡뿐 잇고,
жат 안 보미 플와 나모썸 기궡궡도다.
시절(時節)을 감탄(感歎)호니 고지 ㅁ궡궡궡 ㅁ궡궡궡궡,
여희여슈를 슬호니 새 ㅁ궡궡궡 놀래노라.
봉화(烽火)ㅣ 석 ㅁ궡궡궡 니어시니,
지궡 ㅁ궡궡(音書)는 만금(萬金)이 스도다.
센 머리를 글궡궡 ㅁ궡 더르니,
다 빈혀를 이궡궡 ㅁ궡궡 ㅁ궡궡궡도다.

- ① 위 시와 <보기>는 모두 시적 화자가 남성이다.
② <보기>와 달리 위 시는 선경후정(先景後情)의 구조를 지니고 있다.
③ 위 시는 가족과 함께 있는 상황이, <보기>는 가족과 이별한 상황이 드러난다.
④ 위 시와 달리 <보기>는 과장법의 사용으로 시적 화자의 정서를 고조시키고 있다.
⑤ 위 시는 자연과 인간의 조화가 나타나는 데 비해, <보기>는 자연과 인간의 대조가 나타난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물근 ㅁ궡 혼 고빅 ㉠ㅁ궡홀 아나 흐르느니,
긴 ㉡녀궡 江村(강촌)에 일마다 幽深(유심)㉢흐도다.
절로 가며 절로 ㉣오느니 집 우헛 저비오,
서르 親(친)흐며 서르 갓잡느니 ㅁ궡 가운데 ㅁ궡 굴며기로드.
늘근 겨지븐 죠희를 그려 장괴파늘 ㅁ궡 굴어늘,
저믄 아드룬 바느를 두드려 고기 낫굴 낙술 ㅁ궡 ㅁ궡다.
한 病(병)에 엇고져 혼는 바느 오직 藥物(약물)이니,
저구맛 모미 이 ㅁ궡 다시 ㅁ궡 求(구)흐㉤리오.

- “분류두공부시언해(分類杜工部詩諺解)”

滿開(만개) : 꽃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있다.

⑤ 자연 속에서 누리는 삶에 대한 만족감이 잘 드러난다.

48. ㉠~㉤의 어휘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ㅁ술ㅇ + 올(목적격)’으로 분석되며 ‘마을을’이라는 현대어로 풀이할 수 있다.
- ② ㉡ : ‘너름 + ㅅ(관형격)’으로 분석되며 ‘여름의’이라는 현대어로 풀이할 수 있다.
- ③ ㉢ : 현재형 어미에 해당된다.
- ④ ㉣ : ‘오 + ㄴ(관형사형) + 이(의존 명사) + ㄴ(보조사)’로 분석되며 ‘오는 것은’이라는 현대어로 풀이할 수 있다.
- ⑤ ㉤ : 의문형 어미에 해당된다.

49. <보기>의 단어들에서 보이는 의미 변화 양상과 같은 것을 위 시에서 찾아 <조건>에 맞게 쓰고, <보기>와 같이 의미 변화를 쓰시오.

<보기|>

·얼굴 : 몸 전체 → 안면(顔面)

·여위다 : 생물, 무생물에 걸쳐 널리 사용 → 사람, 동물에만 사용

<조건> 조사는 제외하고 단어의 독립된 형태로 쓸 것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물론 ㉠ᄃᆞᆫ ᄒᆞᆫ 고비 맛술ᄇᆡ 아나 호를ᆺ니,
 긴 ㉡녀를 江村(강촌)에 일마다 幽深(유심)ᄇᆡ도다.
 절로 가며 절로 오느닌 집 우헛 저비오,
 서르 親(친)ᄇᆡ 서르 갓잡ᆯᆺ닌 몹 가온딧 굴머기рода.
 늘근 ㉢겨지븐 쵸히을 그러 장괴파늘 땡굴어늘,
 ㉣저븐 아드른 ㉤바늘 두드려 고기 낫글 낙술 땡ᄃᆞᆫ
 다.

한 病(병)에 엇고져 흥논 바는 오직 藥物(약물)이니,
 ②져구맛 모미 이 밧기 다시 므스글 求(구)히리오.

50. (가)의 표현상의 특징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 ① 색채 대비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 ② 신경 후정의 방식을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③ 대구의 묘미를 살려 다양한 이미지를 보여 주고 있다.
- ④ 먼 곳에서 가까운 곳으로의 시선 이동에 따라 서술하고

51. (가)의 ㉠에 나타난 삶의 자세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대초 볼 불근 골에 맑은 어이 뜻드르며,
벼 뵈 그리헤 게논 어이 느리노고.
술 닉자 체 장스 도라가니 아니 먹고 어이리.
- ② 전원에 봄이 오니 이 몸이 일이 하다.
곳남근 뉘 움김여 약(藥)맞춘 언제 갈리.
아희야, 대 뵈여 오느라 샷갓 묻져 곁을이라.
- ③ 청산(靑山)은 어찌하여 만고(萬古)에 푸르르며
유수(流水)는 어찌하여 주야(晝夜)에 굶지 아니난고
우리도 그치지 말아 만고상청(萬古常靑) 하리라.
- ④ 십년을 경영(經營)하여 초려삼간 지여 내니,
나 혼 간 들 혼 간에 청풍(淸風) 혼 간 맞져 두고
강산(江山)은 들일 디 업스니 둘러 두고 보리라.
- ⑤ 므음아 너논 어이 므양에 저멋는다.
내 늘글 적이면 넌들 아니 늘글소냐.
아마도 너 좃터 돈니다가 늙 우일가 혼노라.

52. (가) 시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시적 화자의 소망은 소박한 것에 있군.
- ② 대구적인 표현을 통해 자연 풍경을 묘사하고 있어.
- ③ 여름날의 한가한 풍경을 담담하게 그려내고 있군.
- ④ 전체적으로 보면 강호 한정가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군.
- ⑤ 화자는 오랜 투병생활로 인해 괴로움을 토로하고 있군.

53. (가) 글의 ㉑~㉓에 대한 어휘 풀이가 잘못된 것은?

- ① ㄱ: 강(江)의 ② ㄴ: 여름의
③ ㄷ: 계집아이는 ④ ㄹ: 어린
⑤ ㅁ: 비늘을

54. (가) 시를 그림으로 표현할 때, 고려할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여름 강가 마을의 고즈넉한 정경을 담아내야겠어.
- ② 화자는 병들고 초췌한 모습으로 처리해야겠어.
- ③ 자신의 주변을 바라보면서 만족해하는 화자의 표정을 담

滿開(만개) : 꽃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아아졌어.

- ④ 제비와 갈매기가 날고 있는 모습을 통해 한가로운 분위기를 표현해야겠어.
- ⑤ 늙은 아내와 어린 아들의 표정에는 화자의 건강을 걱정하는 마음이 드러나도록 표현해야겠어.

55. (가)의 시어 중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보기>

후기 중세 국어에서는 ‘ㄹ’받침으로 끝난 어간에 ‘ㄷ, ㄴ’ 등으로 시작되는 어미와 결합할 때 ‘ㄹ’이 탈락된다.

- ① 흐르느니 ② 갓잡느닌 ③ 죠히를
④ 밍글어늘 ⑤ 밍ᄃ느다

56. <보기>는 (가)에 대한 해석이다. <보기>의 ㉠, ㉡에 해당하는 시어를 찾아 쓰시오.

<보기>

이 작품은 한가하고 평화롭기만 한 자연과는 대조적으로 ㉠누구를 이겨보고, ㉡무엇을 잡아 보려는 인간들의 욕심을 풍자하고 있다.

㉠: _____, ㉡: _____

57. (가) 시에서 의미상 대구를 이루는 시어끼리 짝지어진 것은?

- ① 늘근 겨지븐—저믄 아드룬
② 물근—가랴
③ 죠히를—장기파늘
④ 고기 낫굴—낙술
⑤ 藥物(약물)이니—求(구)하리오

58. 위 글의 시적 화자와 가장 유사한 태도를 보이는 작품은?

- ① 나모도 병이 드니 덩즈라도 쉬리 업다. / 호화이 서신 제
는 오리 가리 다 쉬더니, / 님디고 가지 겠근 후는 새도
아니 안는다. - 정철의 시조
- ② 내님물 그리스와 우니다니 / 山(산)접동새 난 이숯하요이

다 / 아니시며 거즈르신 들 아으 / 殘月曉星(잔월효성)이
아르시리이다. - 정서, ‘정과정’

- ③ 공명(功名)이 귀 무엇고 욕(辱)된 일 만호느니 / 삼배주
(三盃酒) 일곡금(一曲琴)으로 사업을 삼아두고 / 죠흔 태평
연월(太平烟月)에 이리저리 늙으리라

- 김천택의 시조

- ④ 군(君)은 어비여 / 신(臣)은 드스살 어시여, / 민(民)은 얼
흔 아히고 흐살터 / 민(民)이 드술알고다. / 구물스다히 살
손 물생(物生) / 이홀 머기 다스랴.

- 충담사, 안민가

- ⑤ 어와 네여이고 내 스설 드러보오. 내 얼굴 이 거동이 님
괴암죽 흥가마는 엇딘지 날 보시고 네로다 녀기실식 나도
님을 미더 군쁘디 전혀 업서 이리야 교탁야 어즈러이 구
뎡뎡디 반기시는 듯비치 네와 뎡디 다투신고.
- 정철, ‘속미인곡’

59. 위 작품의 표현상의 특징으로 가장 알맞지 않은 것은?

- ① 시상을 대구적으로 구성하고 있다.
② 먼 곳에서 가까운 곳으로 시선을 옮기며 초점이 변화하고 있다.
③ 회화적 묘사가 두드러져서 마치 한 편의 그림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든다.
④ 화자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기 위해 자연의 대상에 감정을 투영시키고 있다.
⑤ 화자 스스로 답을 생각하면서 이를 질문하는 방식으로 독자에게 동조를 구하고 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물근 ᄃ랴 흥 고비 믈술홀 아나 흐르느니
긴 녀름 江村(강촌)에 일마다 幽深(유심)하도다.

- ┌ 절로 가며 절로 오느닌 집 우헛 저비오,
㉠ 서로 親(친)하며, 서르 갓잡느닌 물 가온뎡 굴머
└ 기로다.
┌ 늘근 겨지븐 죠히를 그려 장기파늘 밍글어늘,
㉡ 저믄 아드룬 바느를 두드려 고기 낫굴 낙술 밍ᄃ
└ 느다.

한 病(병)에 엇고져 흥는 바느 오직 藥物(약물)이니,
저구맛 모미 이 맛기 다시 믈스글 求(구)하리오.

滿開(만개) : 꽃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60. ㉠에서 자연적 대상을 대하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난 것은?

- ① 산새도 날아와 / 우짚지 않고, / 구름도 떠 가곤 / 오지 않는다. / 인적(人跡) 끊인 곳 / 홀로 앉은 / 가을 산의 어스름.
- 박두진, '도봉'
- ② 먼 길에 올 제 / 호올로 되어 외로울 제 / 플라타너스 / 너는 그 길을 나와 같이 걸었다. // 이제 너의 뿌리 깊이 / 나의 영혼을 불어넣고 가도 좋으련만 / 플라타너스 / 나는 너와 함께 신(神)이 아니다!
- 김현승, 플라타너스
- ③ 겨우내 / 외로웠지요. / 새봄이 와 / 풀과 말하고 / 새순과 애기하며 / 외로움이란 없다고 / 그대 / 흙도 물도 공기도 바람도 / 모두 다 형제라고 / 형제보다 더 높은 / 어른이라고 / 그리 생각하게 되었지요.
- 김지하, '새봄 3'
- ④ 새는 울어 / 뜻을 만들지 않고 / 지어서 교태로 / 사랑을 가식(假飾)하지 않는다. // ---포수는 한 덩이 납으로 / 그 순수(純粹)를 겨냥하지만 / 매양 쏘는 것은 / 피에 젖은 한 마리 상(傷)한 새에 지나지 않는다.
- 박남수, '새'
- ⑤ 벌목정정(伐木丁丁) 이랬거니 아람도리 큰 솔이 베혀짐죽도 하이 곱이 울어 멩아리 소리 찌르렁 돌아옴죽도 하이 다람쥐도 쫓지 않고 뿔새도 울지 않아 깊은산 고요가 차라리 뼈를 저리우는데 눈과 밤이 조히보담 희고네! - 정지용, '장수산(長壽山) 1'

61. <보기>는 ㉠에 대한 해석에 관한 글이다. (1)과 (2)에 들어갈 알맞은 답을 쓰시오.

<보기>

맑은 강이 마을을 안아 흐르고, 제비와 갈매기가 날고, 아내는 종이를 그려 장기관을 그리며 아들은 바늘을 두드려 고기 잡을 낚시를 만들고 있다. 강촌의 풍경 중에 걸으로는 (1)_____을 그리고 있지만, 속으로는 비둑의 흑백의 대결과 낚시의 굵고 바름의 대결을 언급하며 (2)_____를 풍자하고 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물근 ㅁ궫 ㅎ 고빅 ㉠ㅁ궫홀 아나 흐르느니
긴 녀궫 ㉡江村(강촌)에 일마다 幽深(유심)ㅎ도다.
절로 가며 절로 오느닌 집 우헛 저비오,
서로 親(친)ㅎ며, 서르 갓갑느닌 ㅁ궫 가온뎡 굴며기로다.

늘근 겨지븐 ㉢쵸히를 그려 ㉣장괴파늘 땡굴어늘,
저른 ㉤아드를 바느를 두드려 고기 낫굴 낙술 땡ㅁ느다.
한 病(병)에 엇고져 ㅎ논 바느 오직 藥物(약물)이니,
저구맛 모미 이 ㅁ궫 다시 ㅁ궫求(구)ㅎ리오.

62. <보기>는 위 시를 쓴 작가의 또 다른 작품이다. 위 시와 <보기>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네 洞庭(동정)ㅅ ㅁ궫 듣다니,
오늘 岳陽樓(악양루)의 올오라.
吳(오)와 楚(초)와 東南(동남)녀키 떠뎡고
하늘과 싸과는 日夜(일야)에 뎡도다.
親(친)ㅎ 버디 ㅎ 字(자)ㅅ 글월도 업스니,
늘거 가매 외궫원 비웃 잇도다.
사호맏 ㅁ궫 關山(관산)ㅅ 北(북)녀궫 잇느니,
軒檻(헌함)을 비겨서 ㄴㅁ궫를 흘리노라.

- 두보, '등악양루'

- ① 사회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이 우회적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 ② 인간과 자연을 대조하여 효과적으로 교훈을 이끌어내고 있다.
- ③ 대구법을 사용하여 운율을 살리고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④ 시어를 반복하며 점차 의미를 확장하여 화자의 정서를 고조시키고 있다.
- ⑤ 자연 속에서 자신의 생활에 만족하는 시적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 있다.

63. ㉠~㉣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문법적인 현상을 현대 국어 표기와의 차이점을 들어 70자 내외로 서술하시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물근 ㅁ궫 ㉠ㅎ 고빅 ㅁ궫홀 아나 흐르느니
긴 녀궫 江村(강촌)에 일마다 幽深(유심)ㅎ도다.
절로 가며 절로 오느닌 집 우헛 저비오,
서로 親(친)ㅎ며, 서르 갓갑느닌 ㉡ㅁ궫 가온뎡 굴며기로다.
늘근 겨지븐 ㉢쵸히를 그려 장괴파늘 땡굴어늘,
저른 아드를 바느를 두드려 고기 낫굴 낙술 땡ㅁ느다.
한 病(병)에 엇고져 ㅎ논 바느 오직 藥物(약물)이니,

滿開(만개) : 꽃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㉔저구맛 모미 이 밧기 다시 므스글 求(구)히리오.

64. ㉑~㉔에 해당하는 현대어 풀이를 쓰시오.

- ㉑ 혼 고빔 →
- ㉒ 몫 가운데 →
- ㉓ 죠히를 그려 →
- ㉔ 저구맛 모미 →

65. <보기>는 위 시의 시인이 몇 년 후에 쓴 시이다. 나타난 변화로 가장 알맞지 않은 것은?

<보기>

보미 왔는 萬里(만리)엿 나그네는
亂(난)이 굿거든 어느 히에 도라가려뇨.
江城(강성)에 그려기
노피 正(정)히 北(북)으로 느라가매 애를 굿노라.

- 두보, 귀안(歸雁)

- ① 화자의 위치가 고향에서 고향을 떠난 상태로 바뀌었다.
- ② 화자와 가족이 함께 있는 상태에서 혼자 있는 상태로 바뀌었다.
- ③ 화자는 평화로운 상태였으나 부정적인 현실에 처한 상태로 바뀌었다.
- ④ 자연적 대상과 하나가 된 상태에서 상반된 정서를 가지는 상태로 바뀌었다.
- ⑤ 자신의 현실에 대해 만족해하는 상태에서 현실에 대해 냉소적, 비판적인 상태로 바뀌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노걸대언해(老乞大諺解)

너는 高麗人 사람이어니 쏘 엇디 漢語 니름을 잘 ㉕히
노노

내 漢人 사람의손디 글 비호니 이런 전츠로 저기 漢人
말을 아노라.

내 뒤손디 글 ㉖비혼다.

내 漢 ㉗후당의셔 글 비호라.

내 므스글을 비혼다.

論語 孟子 小學을 닐그와.

내 每日 므스글 공부히노다.

每日 이른 새배 니러 學堂의 가 스승님의 글 비호고 學
堂의셔 노하든 집의 와 밥 먹기 쏘고 쏘 후당의 가 셔품

쓰기 히고 셔품쓰기 못고 년구히기 히고 년구히기 못고
글웁기 히고 글웁기 못고 스승 얹혀서 글을 강히노라.

㉔므스글을 강히노노.

小學 論語 孟子를 강히노라.

- '노걸대언해(老乞大諺解)', 현종(顯宗) 11년 (1670년)

(나) 홍식이 거룩히야 붉은 기운이 하늘을 췌노더니 이
량이 소릴를 넘히히야 나를 불러 저기 물밧출 보라 웨거
늘 급히 눈을 드러 보니 물밧 홍운을 헤아고 큰 실오리
긋흔 줄이 붉기 더욱 기이히며 기운이 진홍 긋한 것이 츄
츄 나 손바닥 너비 긋한 것이 그믐밤의 보는 숯불밧
긋더라. 츄츄 나오더니 그 우호로 적은 회오리밤 긋한 것이
붉기 호박구슬 긋고 맑고 통낭히기는 호박도곤 더 곱더
라.

그 붉은 우호로 홀홀 움직여 도논디 처엄 낫던 붉은 기
운이 빙지 반장 너비만치 반드시 비취며 밤 긋던 기운이
희되야 츄츄 커가며 큰 정반만 히여 붉은붉은 번듯번듯
췌놀며 적식이 윈 바다회 끼치며 문저 붉은 기운이 츄츄
가시며 히 흔들며 췌놀기 더욱 즈로 히며 항 긋고 독 긋
흔 것이 좌우로 췌놀며 황홀이 번득여 낭목이 어즐히며
붉은 기운이 명낭히야 첫 홍식을 헤아고 텃등의 정반 긋
흔 것이 수레박회 긋히야 물속으로서 치미러 밧치디시 올
나 붓히며 항독 긋흔 기운이 스러디고 처엄 붉어 것출 밧
취던 거슨 모혀 소혀터로 드리워 물속의 풍덩 싸디는듯
시브더라 일식이 도요히며 물결의 붉은 기운이 츄츄 가시
며 일광이 청낭하니 만고 텃하의 그런 장관은 뒤두할디
업슬듯히더라.

66. 글 (가) 시기에 나타난 국어의 특징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 ① 모음으로 끝난 체언 뒤에서 주격조사 '가'가 쓰이기 시작했고 명사형 어미 '-기'가 빈번하게 쓰이게 되었다.
- ② 표기면에서 거듭 적기가 많이 나타나며 끊어 적기가 확대되었다.
- ③ 받침은 'ㅅ'과 'ㄷ'이 혼용되다가 점차 'ㅅ'으로 통일되었다.
- ④ ':(아래 아)'는 중세 국어에서 둘째 음절에서부터 없어지기 시작했는데, 이 시기에 들어서는 첫 음절에서도 소실되었다. 단, 발음상에는 계속 남아 있어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 의해서 폐지될 때까지 쓰였다.
- ⑤ 'ㅇ', 'ㅎ', 'ㅅ'도 완전히 소실되었다. 그리고 모음조화가 일부 파괴되기 시작하였고, 구개음화, 원순 모음화, 된소리되기 등의 현상도 나타났다.

67. 글 (가)에 나오는 고려 사람의 일과를 현대말로 정리했을 때 그 순서와 내용이 모두 맞는 것을 고르시오.

滿開(만개) : 꽃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 ① 글 배우기 - 글씨 쓰기 익히기 - 한시 짓기 - 글 읊기 - 강하기
- ② 글 배우기 - 글씨 쓰기 익히기 - 한시 짓기 - 글 읊기 - 토론하기
- ③ 글 배우기 - 글씨 쓰기 익히기 - 글 읊기 - 한시 짓기 - 토론하기
- ④ 글 배우기 - 한시 짓기 - 글씨 쓰기 익히기 - 글 읊기 - 강하기
- ⑤ 글 배우기 - 글씨 쓰기 익히기 - 글 읊기 - 한시 짓기 - 강하기

68. 글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맞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 ① 글(가)의 ㉔는 1, 3인칭에 사용되는 의문형 종결어미에 해당된다.
- ② 글(가)의 ㉕는 2인칭에 사용되는 의문형 종결어미로 현재형이다.
- ③ 글(나)에서 해를 표현한 것은 회오리바람, 큰 쟁반, 수레바퀴 등이다.
- ④ 글(나)에서 해주변의 붉은 기운의 변화 순서는 큰 실오리 - 손바닥 너비 - 빅지 반장 너비 - 항 굵고 독 굵은 것 - 소혀로 되어있다.
- ⑤ 글 (나)에서 ‘△’의 소실을 보여주는 단어로는 처엄에서 알 수 있다.

69. (가)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대화체 형식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 ② 17세기 국어의 특징이 잘 나타나는 글이다.
- ③ 중국어 회화책을 한글로 번역한 실용적인 글이다.
- ④ 당시 외국어 학습의 양상과 시대상을 엿볼 수 있다.
- ⑤ 문어체의 모습을 중심으로 문법적 특징을 살펴볼 수 있게 하는 귀중한 자료이다.

70. ㉔를 어법에 맞게 고쳐 쓰고, 그 근거를 간단히 설명 하시오.

71. (가) 글에 나타난 고려 사람의 일과를 <보기>와 같이 현대의 우리말로 정리했을 때, ①~④에 들어갈 말을

순서에 맞게 쓰시오.

<보기>
글 배우기 → ① → ② → ③ → ④

72. (가) 글에서 알 수 있는 근대 국어의 특징이 아닌 것은?

- ① 모음 조화가 파괴되었다.
- ② 7종성법이 적용되고 있다.
- ③ 끊어적기가 확대되고 있다.
- ④ 다양한 여격 조사가 등장한다.
- ⑤ 사잇소리 ‘ㅅ’이 쓰이고 있다.

73. (가), (나)에 나타난 근대 국어의 특징과 그 예가 바르게 연결되지 못한 것은?

	(가)	(나)
① 모음 조화가 파괴됨	흑당의셔	웨거늘
② ㅅ이 쓰이지 않음	흑당	징반
③ 거듭적기가 나타남	얹피셔	홍식이
④ 7종성법이 적용됨	못고	믈밋츨
⑤ 명사형 어미 ‘-기’를 사용함	글읊기	쨌놀기

74. ㉔에 나타나는 근대 국어의 특징을 음운과 표기로 나눠서 각각 서술하시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너는 高麗人사름이여니 또 엇디 漢語 너를을 잘 ㉔호노
 內 漢人사름의손디 글 빅호니 이런 전츠로 저기 漢人말
 을 아노라
 네 ㉕뉘손디 글 ㉖빅혼다
 내 漢 ㉗흑당의셔 글 빅호라
 네 므슴 글을 빅혼다
 論語 孟子 小學을 닐그㉘와
 네 每日 므슴 공부ㅎ㉙는다
 每日 이른 새배 니러 學堂의 가 스승님의 글 빅호고 學
 堂의셔 노하든 집의 와 밥 먹기 못고 또 흑당의 가 서품
 쓰기 ㅎ고 서품쓰기 못고 년구ㅎ기 ㅎ고 년구ㅎ기 못고
 글읊기 ㅎ고 글읊기 못고 스승 얹피셔 글을 강ㅎ노라

滿開(만개) : 꽃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므슴 글을 강ㅎ느뇨

小學 論語 孟子를 강ㅎ㉔노라

75. 위 글의 ㉑~㉔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을 모두 골라
짜지은 것은?

<보기>

- ㉑ 1, 3인칭 주어에 호응하는 의문형 어미로, 의문형 어미의 혼란을 보여준다.
㉒ 2인칭 주어에 사용하는 과거 시제 의문형 어미이다.
㉓ 현재 시제 평서형 종결 어미이다.
㉔ 2인칭 주어에 사용하는 현재 시제 의문형 어미이다.
㉕ 2인칭 주어에만 쓰이는 평서형 어미이다.

- ① ㉒, ㉕ ② ㉓, ㉕ ③ ㉑, ㉒, ㉕
④ ㉑, ㉒, ㉕ ⑤ ㉒, ㉓, ㉕

76. 위 글의 ㉕를 현대어로 고쳐 쓰시오.

77. 위 글에서 현대 국어의 '에게(서)'에 해당하는 여격
조사를 모두 찾아 쓰시오.

78. 위 글의 표기상 특징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 ① 8종성법이 적용되었다.
② 주로 끊어적기가 쓰이고 있다.
③ 'ㅅ'계 합용병서를 사용하고 있다.
④ 명사형 어미 '-기'가 활발하게 쓰였다.
⑤ '혹당의서'처럼 모음조화의 파괴가 나타나 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그 붉은 우호로 훌훌 움직여 도는듯 ㉑처업 낫던 붉은 기운이 빅지 반장 너비만치 반드시 비취며 밤 굶던 기운이 희되야 찡찡 커가며 큰 정반만 하여 불웃불웃 번듯번듯 썩놀며 적식이 윈 바다회 끼치며 문져 붉은 기운이 찡찡 가식며 희 흔들며 썩놀기 더욱 즈로 하며 항 굶고 독 굶힌 것이 좌우로 썩놀며 황홀이 번득여 ㉒낭목이 어줄하며 붉은 기운이 명낭하야 첫 홍식을 ㉓혜앗고 텃들의 정반 굶힌 것이 수레박회 굶하야 물속으로서 치미러 밧치드시 올라 붓으며 항독 굶힌 기운이 스러디고 처업 붉어 것출 빗죄던 거슨 모혀 소혀터로 드리워 물속의 풍덩 싸디는듯 시브더라 일식이 ㉔도요하며 물결의 붉은 기운이 찡찡 가식며 일광이 청낭하니 만고 텃하의 그런 장관은 ㉕되두할딘 업슬듯 하더라

79. 위 글의 ㉑~㉔에 대한 의미로 알맞지 않은 것은?

- ① ㉑ : 처음 ② ㉒ : 두 눈 ③ ㉓ : 헤치고
④ ㉔ : 조용하며 ⑤ ㉕ : 견줄 데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㉑너는 高麗ㅅ사람이어니 쫓 엇디 漢語 니를을 잘
ㅎ느뇨

내 漢ㅅ사람의손딘 글 비호니 이런 전츠로 저기 漢ㅅ말
을 아노라

㉒네 귀손딘 글 비혼다

내 漢 혹당의서 글 비호라

네 므슴 글을 비혼다

㉓論語 孟子 小學을 닐그와

㉔네 每日 므슴 공부ㅎ는다

每日 이른 새배 니러 學堂의 가 스승님의 글 비호고 學
堂의서 노하든 집의 와 밥 먹기 못고 쫓 혹당의 가 서품
쓰기 ㅎ고 서품쓰기 못고 년구ㅎ기 ㅎ고 년구ㅎ기 못고
글웁기 ㅎ고 글웁기 못고 스승 앓피서 글을 강ㅎ노라

므슴 글을 강ㅎ느뇨

㉕小學 論語 孟子를 강ㅎ노라

- “노결대언해(老乞大諺解)”, 현종 11년(1670년)

80. (가)글에서 ㉑~㉔의 문장의 종류에 대해 공부하고자
한다. 각 문장의 종류에 해당하는 기호를 모두 쓰시
오.

(1) 평서문 :

(2) 의문문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너는 高麗ㅅ사람이어니 쫓 엇디 漢語 ㉑니를을 잘 ㅎ느
뇨

내 ㉒漢ㅅ사람의손딘 글 비호니 이런 ㉓전츠로 저기 漢
ㅅ말을 아노라

네 귀손딘 글 비혼다

내 漢 ㉔혹당의서 글 비호라

네 므슴 글을 비혼다

論語 孟子 小學을 닐그와

네 每日 므슴 공부ㅎ는다

每日 이른 새배 니러 學堂의 가 스승님의 글 비호고 學

滿開(만개) : 꽃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堂의셔 노하든 집의 와 밥 먹기 못고 쏘 학당의 가 서품
쓰기 호고 서품쓰기 못고 년구호기 호고 년구호기 못고
글웁기 호고 글웁기 못고 스승 ㉠얹्ष서 글을 강호노라

81. ㉠~㉢의 현대어 풀이로 가장 알맞지 않은 것은?

- ① ㉠ 니름을 → 말함, 말하기를
- ② ㉡ 漢人사람의손터 → 중국 사람으로부터
- ③ ㉢ 전츠로 → 까닭으로
- ④ ㉣ 학당의셔 → 학당에서
- ⑤ ㉤ 얹्ष서 → 앞에서

82.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 ① ‘나’는 중국 사람에게서 글을 배웠다.
- ② ‘나’는 고려 사람인데 중국말을 잘한다.
- ③ ‘나’에게 질문하는 이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 ④ ‘나’는 학생으로, 날마다 학당에서 공부를 한다.
- ⑤ ‘나’는 자신보다 어린 아이들에게 소학, 논어, 맹자를 가르친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너는 高麗人사람이더니 쏘 엇디 漢語 니름을 잘 호느노
㉠내 漢人사람의손터 글 비호니 이런 전츠로 저기 漢人
말을 아노라
네 귀손터 글 비호나
내 漢 학당의셔 글 비호라
네 므슴 글을 비호나
論語 孟子 小學을 닐그와
네 毎日 므슴 공부호느다
㉡ [毎日 이른 새배 니러 學堂의 가 스승님씨 글 비호
고 學堂의셔 노하든 집의 와 밥 먹기 못고 쏘 학당의 가
서품쓰기 호고 서품쓰기 못고 년구호기 호고 년구호기 못
고 글웁기 호고 글웁기 못고 스승 얹्ष서 글을 강호노라]
므슴 글을 강호느노
小學 論語 孟子를 강호노라
- “노걸대언해(老乞大諺解)”, 현종 11년(1670년)

83. ㉡에서 나타나는 고려 사람의 일과를 <보기>와 같이 정리하였다. ㉠과 ㉢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현대어로 쓰시오.

<보기>

매일 이른 새벽에 일어나 학당에 가서 스승님께 글을 배우고,
방과 후에는 집에 와서 밥 먹기를 마치고, 또 학당에 가서 (㉠)를 하고, (㉡)를 마치고는 (㉢)을 하고, (㉣)을 마치고는 스승님 앞에서 강(講)하노라.

㉠ : (), ㉡ : ()

84.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얹्ष서’와 같이 거듭적기 표기가 사용되었다.
- ② ‘학당의셔’에서 알 수 있듯, 모음조화 파괴되었다.
- ③ 중국어를 공부하는 이유와 학습 일과를 소개하고 있다.
- ④ ‘못고, ‘글웁기’에서 알 수 있듯 7중성법이 사용된다.
- ⑤ 두 사람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어 구어체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85. 위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 밑줄 친 ㉠을 현대어로 해석하시오.

(2) 화자의 하루 일과 중 학습하는 방법 3가지를 찾아 현대어로 쓰시오.

86. 위 글에 드러난 근대국어의 종결 어미를 <보기>와 같이 정리할 때 빈 칸을 알맞게 채우면?

종결어미	문법적 기능
㉠	‘엇디, 무슴’과 함께 쓰이는 의문형 어미
㉡	2인칭 주어와 함께 쓰이는 의문형 어미
㉢	평서형 어미

	㉠	㉡	㉢
①	호느노	-노라	-는다
②	-노라	호느노	-는다
③	-는다	-노라	호느노
④	-는다	호느노	-노라
⑤	호느노	-는다	-노라

滿開(만개) : 꽃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世宗御製訓民正音

나랏말싸미 中韓國에 달아, 文文字종와로 서르스
못디 아니 흘씩, 이런 전초로 어린 百·백·姓·성·이 니르
고져 鴻·배 이셔도, ㅁ·춤: 내 제쁘들 사러 파디 :몬 鴻
노미 하나라. 내아를 爲·왕·하야 :어엿비 너겨, 새로
스·물·여·들 字·종·를 鳴·노니, :사람:마다 :하·여 :수비 나
겨·날·로·쑤·메 便·便·安·한·키 ㅎ·고져 鴻 ㅅ·르·미·나·라.

(나) 홍식이 ㉠거룩하야 붉은 기운이 하늘을 썩노더니
이랑이 소릴를 놉히하야 나를 불러 저기 ㉡물밧출 보라
웨거늘 급히 눈을 드러 보니 물밧 홍운을 헤았고 ㉢큰 실
오리 굵은 줄이 붉기 더욱 기이하며 기운이 진홍 굵한 것
이 촌촌 나 손바닥 너비 굵한 것이 그믐밤의 보는 솟불빛
긋더라. 촌촌 나오더니 그 우호로 적은 회오리밤 굵한 것
이 붉기 호박구슬 굵고 맑고 ㉣통낭하기는 호박도곤 더
곱더라.

그 붉은 우호로 훌훌 움직여 도는디 처음 낫던 붉은 기
운이 빙지 반장 너비만치 반드시 비취며 밤 굵던 기운이
희되야 촌촌 커가며 큰 정반만 하여 붉은붉은 번듯번듯
썩놀며 적식이 윈 바다회 끼치며 묻져 붉은 기운이 촌촌
가식며 희 흔들며 썩놀기 더욱 크로 하며 향 굵고 독 굵
한 것이 좌우로 썩놀며 황홀이 번득여 ㉤낭목이 어즐하며
붉은 기운이 명낭하야 첫 홍식을 헤았고 텃등의 정반 굵
한 것이 수레박회 곱하야 물속으로서 치미러 밧치드시 올
나 붓으며 향독 곱한 기운이 스러디고 처음 붉어 것출 밧
쳐던 거슨 모혀 소허터로 드리워 물속의 풍덩 싸디는듯
시브더라 일식이 ㉥도요하며 물결의 붉은 기운이 촌촌 가
식며 일광이 청낭하니 만고 텃하의 그런 장관은 더두할디
업슬듯하더라.

87. 다음 보기 중 글 (나)의 ㉠~㉥에 나오는 어휘에 대
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 ① ㉠거룩하야 - 매우 아름다워
- ② ㉢큰 실오리 - 해가 떠오른 후의 수평선에 비친 빛줄기
- ③ ㉣통낭하기는 - 속까지 비치어 환하기는
- ④ ㉤낭목이 - 양 귀가
- ⑤ ㉥도요하며 - 길게 뻗어 있으며

88. 글 (가)에 비해 글 (나)의 언어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 ① 섬세한 필치가 돋보이며, 순수한 우리말을 많이 사용하여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 ② 거듭 적기가 나타났으며, 모음조화 파괴 현상이 나타났다.
- ③ 원순모음화가 사용된 단어가 나타나 있다.
- ④ 명사형 어미 ‘-기’가 활발하게 쓰였다.

- ⑤ 두음법칙과 구개음화, 단모음화 현상이 모든 단어에 나타
나 있다.

89. 위 글(가) 시대와 비교했을 때 (나)의 밑줄 친 ㉡‘물
밧출’에서 새롭게 나타난 음운 현상의(A: 7종성법)
(B: 구개음화) (C: 모음조화 문란), (D:)
등 4가지가 나타나는 데 그 중 (D:)에 들어
갈 음운 현상을 다음 예시와 같이 개념을 쓰고 그 과
정을 설명하십시오.

예시: A ㉠ 7종성법(칠종성법)

- ② 설명: ‘밧’의 ‘ㅅ’ 받침(종성)이 원래는 ‘ㅌ’ 받침
인데 칠종성법 규정에 따라 ‘ㅌ’자음이 팔종성법인
‘ㄷ’으로 표기 하지 않고 ‘ㄷ’ 대신 ‘ㅅ’으로 표기
했다.

예시: B ㉠ 구개음화

- ② 설명: ‘물밧출’에서 ‘밧’의 받침 ‘ㅅ’ 받침은 원래
‘ㅌ’ 받침인데 이 ‘ㅌ’ 받침을 ‘출’ 음절의 초성이
‘ㅌ’로 바뀌어 표현한 것을 말한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너는 高麗人사람이여니 쏘 엇디 漢語 니름을 잘
㉠하노노.

내 ㉡漢人사람의손디 글 비호니 이런 전초로 저기 漢人
말을 ㉢아노라

내 뉘손디 글 ㉣비호나.

내 漢 후당의셔 글 ㉤비호라.

네 므슴 글을 비호나.

論語 孟子 小學을 ㉥닐그와.

네 每日 므슴 공부 하노나

每日 이른 새배 니러 學堂의 가 스승님의 글 비호고 學
堂의셔 노하든 집의 와 밥 먹기 못고 쏘 후당의 가 서품
쓰기 하고 서품쓰기 못고 년구하기 하고 ㉦년구하기 못고
글웁기 하고 글웁기 못고 스승 앵피셔 글을 강하노라

므슴 글을 강하노노

論語 孟子 小學를 강하노라

—“노걸대언해(老乞大諺解)”, 현종 11년(1670
년)

(나) 홍식이 거룩하야 붉은 기운이 하늘을 썩노더니 이
랑이 소릴를 놉히하야 나를 불러 저기 물밧출 보나 웨거
늘 급히 눈을 드러 보니 물밧 홍운을 ㉧헤았고 큰 실오리

滿開(만개): 꽃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꺾흔 줄이 붉기 더욱 괴이하며 기운이 진홍 꺾흔 것이 촌
 촌 나 손바닥 너비 꺾흔 것이 그믐밤의 보는 숯불빛 꺾더
 라. 촌촌 나오더니 그 후르로 적은 회오리밤 꺾흔 것이
 붉기 호박 구슬 꺾고 맑고 통낭헝기는 호박도곤 더 곱더
 라

그 붉은 우호로 훌훌 움죽여 도논디 처엄 낫던 붉은 기
 운이 빅지 반장 너비만치 반드시 비취며 밤 꺾던 기운이
 히 되야 촌촌 커 가며 큰 정반만 헝여 붉웃붉웃 번듯번
 듯 썬뿔며 적식이 윈 바다회 ㉠끼치며 문저 붉은 기운이
 촌촌 가식며 히 흔들며 썬뿔기 더욱 즈로 헝며 항 꺾고
 독 꺾흔 것이 좌우로 썬뿔며 황홀이 번득여 낭목이 어즐
 헝며 붉은 기운이 명낭헝야 첫 홍식을 헤앗고 텃등의 정
 반 꺾흔 것이 수레박회 꺾헝야 물속으로서 치미러 밧치
 드시 울나붓헝며 항독 꺾흔 기운이 스러디고 처엄 붉어
 것쥔 빗최던 거슨 모혀 소혀터로 드리워 물속의 풍덩 싸
 디는 듯시 브더라 일식이 ㉡도요헝며 물결의 붉은 기운이
 촌촌 가식며 일광이 청 낭헝니 만고 텃하의 그런 장관은
 딛두홀 더 업슬 듯헝더라. - ‘의유당관북유람일기(意幽堂
 關北遊覽日記)’, 영조8년(1772년)

거늘 급히 눈을 드러 보니 물빛 홍운을 헤앗고 큰 실오리
 꺾흔 ㉠줄이 붉기 더욱 괴이하며 기운이 진홍 꺾흔 것이
 촌촌 나 손바닥 너비 꺾흔 것이 그믐밤의 ㉢보는 숯불빛
 꺾더라. 촌촌 나오더니 그 우호로 적은 회오리밤 꺾흔 것
 이 붉기 호박 구슬 꺾고 맑고 ㉣통낭헝기는 호박도곤 더
 곱더라

그 붉은 우호로 훌훌 움죽여 도논디 처엄 낫던 붉은 기
 운이 빅지 반장 너비만치 반드시 비취며 밤 꺾던 기운이
 히 되야 촌촌 커 가며 큰 정반만 헝여 붉웃붉웃 번듯번
 듯 썬뿔며 적식이 윈 바다회 끼치며 문저 붉은 기운이 촌
 촌 ㉠가식며 히 흔들며 썬뿔기 더욱 즈로 헝며 항 꺾고
 독 꺾흔 것이 좌우로 썬뿔며 황홀이 번득여 낭목이 어즐
 헝며 붉은 기운이 ㉢명낭헝야 첫 홍식을 헤앗고 텃등의
 정반 꺾흔 것이 수레박회 꺾헝야 물속으로서 치미러 밧치
 드시 울나붓헝며 항독 꺾흔 기운이 스러디고 처엄 붉어
 것쥔 빗최던 거슨 모혀 소혀터로 드리워 물속의 풍덩 싸
 디는 듯시브더라 일식이 ㉡도요헝며 물결의 붉은 기운이
 촌촌 가식며 일광이 청낭헝니 만고 텃하의 그런 장관은
 ㉣딛두홀 더 업슬 듯헝더라

90. (가)~(나)에서 알 수 있는 근대국어의 특징과 사례가 잘못 제시된 것은?

- ① ‘ㅇ’의 소실 - 흑당, 스승님, 정반
- ② 거듭적기 - 앓피서, 물밧출, 밧치드시
- ③ 모음조화 파괴 - 나름을, 흑당의서, 웨거늘
- ④ 7종성법의 적용 - 뭇고, 물밧출, 숯불밧
- ⑤ 명사형 어미 ‘-기’의 사용 - 먹기, 붉기, 썬뿔기

91. (가)~(나)의 어휘들에 대한 현대어 풀이가 바르지 않은 것은?

- ① ㉠ 漢人사람의손디 - 중국사람에게
- ② ㉡ 년구헝기 뭇고 - 시구짓기를 끝내고
- ③ ㉢ 헤앗고 - 헤아리고
- ④ ㉣ 끼치며 - 기운이 주변에 퍼지며
- ⑤ ㉤도요헝며 - 밝게 비쳐 빛나며

92. (나)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해의 비유적 표현을 모두 찾아서 순서대로 쓰시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홍식이 거룩헝야 붉은 기운이 ㉠하늘을 썬노더니 이랑
 이 소리를 눕히 헝야 ㉡나를 불러 저기 ㉢물밧출 모라 웨

93. 위 글에 대한 학생들의 대화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태현 : ‘숯불, 회오리밤’등 순 한글 어휘가 많이 사용된 글이야.
- ② 민우 : 맞아. 게다가 ‘붉웃붉웃, 번듯번듯’등 감각이나 색채를 나타내는 어휘도 많이 보여.
- ③ 광희 : 민우가 예를 든 ‘붉웃붉웃’은 현대 국어와 달리 원순 모음화가 적용되지 않은 표기야.
- ④ 형식 : ‘꺾흔’에서 받침 ‘ㄷ’이 사잇소리에 의해 ‘ㅅ’으로 표기됨을 확인할 수 있어.
- ⑤ 동준 : 그리고 ‘텃등, 도요헝며’는 현대 국어와 달리 구개음화가 적용되지 않은 표기임을 알 수 있어.

94. ㉠~㉤의 뜻풀이가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속까지 비치어 환하기는
- ② ㉡ : 없어지며
- ③ ㉢ : 흐린 데 없이 밝고 환하여
- ④ ㉣ : 고요하며
- ⑤ ㉤ : 건줄

95. <보기>에 설명하는 위 글의 특징에 해당하는 예를 ㉠~㉤에서 찾아 바르게 연결하시오.

<보기>

滿開(만개) : 꽃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이어적기’하였던 중세 국어와 달리 ‘끊어적기’를 한 표기가 나타난다.	①
중세 국어와 달리 ‘거듭적기’가 나타난다.	②
‘모음 조화’가 잘 지켜졌던 중세 국어와 달리 ‘모음 조화’가 파괴된 표기들이 등장한다.	③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홍식이 거룩하야 붉은 기운이 하늘을 쐬노더니 이랑이 소리를 높히 호야 나를 불러 저기 물밧출 모라 웨거늘 급히 눈을 드러 보니 물밧 홍운을 헤아고 큰 실오리 굵은 줄이 붉기 더욱 괴이하며 기운이 진홍 굵은 것이 촌촌 나 손바닥 너비 굵은 것이 그믐밤의 보는 솟불빛 굵더라. 촌촌 나오더니 그 우호로 적은 회오리밤 굵은 것이 붉기 호박 구슬 굵고 맑고 통낭헌기는 호박도곤 더 곱더라

그 붉은 우호로 훌훌 움죽여 도논디 ㉠처업 낫던 붉은 기운이 빙지 반장 너비만치 반드시 비취며 밤 굵던 기운이 희 되야 촌촌 커 가며 큰 정반만 호여 붉은붉은 번듯 번듯 쐬놀며 적식이 윈 바다회 끼치며 묻저 붉은 기운이 촌촌 가시며 희 흔들며 쐬놀기 더욱 즈로 하며 항 굵고 독 굵은 것이 좌우로 쐬놀며 황홀이 번득여 낭목이 어즐 하며 붉은 기운이 명낭하야 첫 홍식을 헤아고 텃등의 정반 굵은 것이 수레박회 굵하야 물속으로서 치미러 밧치디시 울나붓호며 항독 굵은 기운이 스러디고 처업 붉어 것출 밧취던 거손 모혀 소혀터로 드리워 물속의 풍덩 싸디는 듯시브더라 일식이 도요하며 물결의 붉은 기운이 촌촌 가시며 일광이 청낭헌니 만고 텃하의 그런 장관은 더두홀디 업슬 듯더라

96. 이 글이 쓰일 당시 국어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모음 조화가 파괴되기 시작하였다.
- ② 끊어적기가 확대되고 거듭적기가 나타났다.
- ③ 명사형 어미 ‘-기’가 빈번하게 쓰이게 되었다.
- ④ 모음으로 끝난 체언 뒤에서 주격조사 ‘ㅣ’나‘이’가 쓰이기 시작하였다.
- ⑤ ‘ㅅ’과 ‘ㄷ’이 혼용되다가 점차 ‘ㅅ’으로 통일되면서 7종성 체계로 변화하였다.

97. ㉠을 통해 알 수 있는 근대 국어와 중세 국어의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98. 위 글과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즌 서리 싸진 후의 산 빗치 금슈(錦繡)로다. 황운(黃雲)은 쏘엇지 만경(萬頃)에 평거괴요. 어적(漁笛)도 흥을 계워 돌롤 썩라 브닌다. 초목(草木) 다 진 후의 강산(江山)이 민물커늘 조물(造物)이 현스하야 빙설(氷雪)로 꾸며 내니 경궁요대(瓊宮瑤臺)와 옥해은산(玉海銀山)이 안저(眼底)에 버려세라. 건곤(乾坤)도 가옴열사 간 대마다 경이로다.

- 송순, 면앙정가(倦仰亭歌)

- ① 위 글과 <보기>는 모두 계절적 배경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위 글과 달리, <보기>에는 감정이입의 대상이 드러나 있다.
- ③ 위 글과 <보기>는 모두 글쓴이의 주관적 감상이 나타나 있다.
- ④ 위 글은 여성적 어조를, <보기>는 남성적 어조를 특징으로 한다.
- ⑤ 위 글은 일출 광경을, <보기>는 아름다운 산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너는 高麗ㅅ사릅이여니 쏘 엇디 漢語 니릅을 잘 호느뇨
내 漢ㅅ사릅의손디 글 비호니 이런 전츠로 저기 漢ㅅ말을 아노라
네 뉘손디 글 비혼다
내 漢 ㉠후당의셔 글 비호라
네 므슴 글을 비혼다
論語 孟子 小學을 닐그와
네 每日 므슴 공부호느다
每日 이른 새매 니러 學堂의 가 스승님㉡의 글 비호고 學堂의셔 노하든 집의 와 밥 먹기 밧고 쏘 후당의 가 셔품쓰기 호고 셔품쓰기 밧고 년구호기 호고 년구호기 밧고 글웁기 호고 글웁기 밧고 스승 얹피셔 글을 강호노라
므슴 글을 강호느뇨
小學 論語 孟子를 강호노라

(나) 홍식이 거룩하야 붉은 기운이 하늘을 쐬노더니 이랑이 소리를 높히 호야 나를 불러 저기 물밧출 모라 웨거늘 급히 눈을 드러 보니 물밧 홍운을 헤아고 큰 실오리 굵은 줄이 붉기 더욱 괴이하며 기운이 진홍 굵은 것이 촌촌 나 손바닥 너비 굵은 것이 그믐밤의 보는 솟불빛 굵더라. 촌촌 나오더니 그 우호로 적은 회오리밤 굵은 것이

滿開(만개) : 꽃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붉기 호박 구슬 꺾고 뭍고 통낭헌기는 호박⑤도곤 더 곱더라

그 붉은 우호로 훌훌 움죽여 도논디 처엄 낫던 붉은 기운이 빅지 반장 너비만치 반드시 비취며 밤 꺾던 기운이 히 되야 츠츠 커 가며 큰 정반만 하여 붉웃붉웃 번듯번듯 썩놀며 적식이 윈 바다회 씨치며 묻져 붉은 기운이 츠츠 가시며 히 흔들며 썩놀기 더욱 즈로 하며 항 꺾고 독 꺾은 것이 좌우로 썩놀며 황홀이 번득여 낭목이 어즐하며 붉은 기운이 명낭하야 첫 홍식을 헤앗고 텃등의 정반 꺾은 것이 수레박회 꺾하야 물속으로서 치미러 밧치드시 올라붓으며 항독 꺾은 기운이 스러디고 처엄 붉어 것출 빗최던 거슨 모혀 소혀터로 드리워 물속의 풍덩 싸디는 듯시브더라 일식이 도요하며 물결의 붉은 기운이 츠츠 가시며 일광이 청낭하니 만고 텃하의 그런 장관은 디두홀 디업슬 듯더라

99. (나)에 대한 표현상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시간의 흐름에 따른 내용의 전개가 나타난다.
- ② 대상에 대한 세밀하고 섬세한 관찰력이 돋보인다.
- ③ 상투적인 표현보다는 참신한 표현들이 많이 사용되었다.
- ④ 일상생활을 떠나 색다른 소재를 사용하여 신선함을 느끼게 한다.
- ⑤ 대상의 모양이나 색채 등 시각적 이미지를 중심으로 묘사하고 있다.

100. ㉔, ㉕의 조사를 현대어로 풀이한 후, 이를 사용하여 예문을 하나씩 만드시오.

101. (나) 글의 주제와 가장 비슷한 것은?

- ① 구렁에 낫는 풀이 봄비에 절로 길어
알을 일 업스니 꺾 아니 조호소냐.
우리는 너희만 못하야 실람겨워 흐노라.
- ② 오늘도 다 새거다, 호의 메고 가자스라.
내 논 다 밷여든 네 논 점 밷여 주마.
홀 길헤 썩 빠다가 누에 머겨 보자스라.
- ③ 간밤에 눈 갠 後후에 景物들이 달란고야.
이어라 이어라
압회는 萬만頃境疏離 뒤회는 千仞疊巔玉옥山산.
至지蜀國窓窓 至지蜀國窓窓 於어思사臥와
仙仙界계계가 佛佛戒계계가. 人人間간이 아니로다.
- ④ 동원(東園)의 도리화(桃李花)는 편시춘(片時春)을 자랑 마소

이십번(二十番) 꽃바람의 적막(寂寞)히 씨러진들 뉘라서 슬허
홀고

규등(閨中)에 남은 인연(因緣) 그디 혼 몸뿐이로세

⑤ 브롬도 쉬여 넘는 고기, 구름이라도 쉬여 넘는 고기,

산진(山眞)이 수진(水眞)이 해동청(海東靑) 보르미도 다 쉬여
넘는 고봉(高峯) 장성(長城嶺) 고기,

그 너머 넘어 왔다 하면 나는 아니 혼 번도 쉬여 넘어 가리라.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홍식이 거록하야 붉은 기운이 하늘을 썩노더니 이랑이 소리를 높히 하야 나를 불러 저기 물밧출 모라 웨거늘 급히 눈을 드러 보니 물밧 홍운을 헤앗고 ㉔큰 실오리 꺾은 줄이 붉기 더욱 기이하며 기운이 진홍 꺾은 것이 츠츠 나 ㉕순바닥 너비 꺾은 것이 그믐밤의 보는 솟불빛 꺾더라. 츠츠 나오더니 그 우호로 적은 ㉔회오리반 꺾은 것이 붉기 호박 구슬 꺾고 뭍고 통낭헌기는 호박도곤 더 곱더라

그 붉은 우호로 훌훌 움죽여 도논디 처엄 낫던 붉은 기운이 ㉔빅지 반장 너비만치 반드시 비취며 밤 꺾던 기운이 히 되야 츠츠 커 가며 ㉔큰 정반만 하여 붉웃붉웃 번듯번듯 썩놀며 적식이 윈 바다회 씨치며 묻져 붉은 기운이 츠츠 가시며 히 흔들며 썩놀기 더욱 즈로 하며 항 꺾고 독 꺾은 것이 좌우로 썩놀며 황홀이 번득여 낭목이 어즐하며 붉은 기운이 명낭하야 첫 홍식을 헤앗고 텃등의 정반 꺾은 것이 ㉔수레박회 꺾하야 물속으로서 치미러 밧치드시 올라붓으며 항독 꺾은 기운이 스러디고 처엄 붉어 것출 빗최던 거슨 모혀 ㉔소혀터로 드리워 물속의 풍덩 싸디는 듯시브더라 일식이 도요하며 물결의 붉은 기운이 츠츠 가시며 일광이 청낭하니 만고 텃하의 그런 장관은 디두홀 디업슬 듯더라

102. 위 글에 나타난 근대 국어의 특징과 그 예를 짝지은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거듭적기가 나타남 : 드러
- ② 7종성법이 적용됨 : 솟불빛
- ③ 끊어적기가 확대됨 : 기운이
- ④ 모음 조화가 파괴됨 : 웨거늘
- ⑤ ‘ㄹㄹ’이 ‘ㄹㅂ’으로 표기됨 : 올라

103. 위 글에서 일출 광경의 묘사와 비유가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滿開(만개) : 꽃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해	바다에 비친 해의 기운
① ㉠, ㉡	㉢, ㉣, ㉤
② ㉥, ㉦, ㉧	㉨, ㉩, ㉪
③ ㉫, ㉬, ㉭	㉮, ㉯, ㉰
④ ㉱, ㉲, ㉳	㉴, ㉵, ㉶, ㉷
⑤ ㉸, ㉹, ㉺	㉻, ㉼, ㉽, ㉾

104.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표기법의 예를 위 글에서 2가지 찾아 쓰시오.

<보기>

하나의 음소를 두 개의 음소로 쪼개어 표기하는 것으로 ‘ㄷ → ㅈ+ㅎ, ㅈ → ㅊ+ㅎ, ㅌ → ㄷ+ㅎ, ㅍ → ㅍ+ㅎ’ 등 거센 소리를 2차 분석하여 적는 표기법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홍식이 거룩하야 ㉠붉은 기운이 하늘을 쑤노더니 이량이 소릴를 낚히하야 나를 불러 저기 ㉡물밧출 보라 웨거늘 급히 눈을 드러 보니 물밧 홍운을 헤았고 큰 실오리 굵은 줄이 붉기 더욱 괴이하며 기운이 진홍 굵한 것이 촌 촌 나 손바닥 너비 굵한 것이 그믐밤의 보는 ㉢숫불밧 굵더라. 촌 촌 나오더니 그 우호로 적은 ㉣회오리밤 굵한 것이 붉기 ㉤호박구슬 굵고 맑고 통낭하기는 호박도곤 더 굵더라. 그 붉은 우호로 훌훌 움죽여 도논디 처엄 낫던 붉은 기운이 빙지 반장 너비만치 반드시 비취며 밤 굵던 기운이 희되야 촌 촌 커가며 ㉥큰 정반만 하여 불웃불웃 번듯번듯 쑤놀며 적식이 윈 바다회 끼치며 묻져 붉은 기운이 촌 촌 가시며 희 흔들며 쑤놀기 더욱 주로 하며 향 굵고 독 굵한 것이 좌우로 쑤놀며 황홀이 번득여 낭목이 어즐하며 붉은 기운이 명낭하야 첫 홍식을 헤았고 턱둥의 정반 굵한 것이 ㉦수레박회 굵하야 ㉧물 속으로서 치미러 밧치드시 올라 붓으며 향독 굵한 기운이 스러디고 처엄 붉어 것출 밧치던 거슨 모혀 ㉨소혀터로 드리워 물속의 풍덩 빠디는듯 시브더라 일식이 도요하며 ㉩물결의 붉은 기운이 촌 촌 가시며 일광이 청낭하니 만고 턱하의 그런 장관은 뒤두할디 업슬듯하더라

105. 위 글에서 함축적 의미가 같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 ㉡ ② ㉢, ㉣ ③ ㉤, ㉥, ㉦
 ④ ㉦, ㉧, ㉨ ⑤ ㉢, ㉣, ㉤

106. 위 글과 <보기>를 비교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梨花花는 불셔 디고 접동새 슬피 울 제,
 洛客山山 東동畔반으로 義의相상臺臺에 올라 안자,
 日日出출을 보리라 밤동만 니러히니,
 祥상雲운이 집피는 동, 六六龍龍이 바되는 동,
 바다히 써날 제는 萬만國國이 일위더니,
 天천中중의 티쓰니 毫毫髮발을 헤리로다.
 아마도 널구름 근처의 머물세라.

-정철 <관동별곡>

- ① 위 글, <보기> 모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술하고 있다.
 ② 위 글, <보기> 모두 대상을 비유하여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③ 위 글, <보기> 모두 동일한 상황에서 장엄한 자연을 표현하였다.
 ④ 위 글은 주관적으로 묘사한 데 비해, <보기>는 객관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⑤ 위 글은 섬세하고 여성적인 데 비해, <보기>는 호쾌하고 웅장하며 남성적이다.

107. 위 글의 표기를 바탕으로 유추한 근대국어의 특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 ① 음가(音價)가 소실된 음운이 표기법에 사용됨
 ② 끊어적기가 확대됨
 ③ 구개음화, 원순모음화 현상이 적용됨
 ④ 첫소리에 합용병서가 사용됨
 ⑤ 문장 구성 방식이 현대와 거의 비슷해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홍식이 거룩하야 붉은 기운이 하늘을 쑤노더니 이량이 소릴를 낚히 하야 나를 불러 저기 물밧출 보라 웨거늘 급히 눈을 드러 보니 물밧 홍운을 헤았고 큰 실오리 굵은 줄이 붉기 더욱 괴이하며 기운이 진홍 굵한 것이 촌 촌 나 손바닥 너비 굵한 것이 ㉠그믐밤의 보는 숫불밧 굵더라. 촌 촌 나오더니 그 우호로 적은 회오리밤 굵한 것이 붉기 호박 구슬 굵고 맑고 통낭하기는 호박도곤 더 굵더라.

그 붉은 우호로 훌훌 움죽여 도논디 처엄 낫던 붉은 기운이 빙지 반 장 너비만치 반드시 비취며 밤 굵던 기운이 희 되야 촌 촌 커 가며 큰 정반만 하여 불웃불웃 번듯번듯 쑤놀며 적식이 윈 바다회 끼치며 묻져 붉은 기운이 촌 촌 가시며 희 흔들며 쑤놀기 더욱 주로 하며 향 굵고 독 굵한 것이 좌우로 쑤놀며 황홀이 번득여 낭목이 어즐하며 붉은 기운이 명낭하야 첫 홍식을 헤았고 턱둥의 정반 굵한 것이 ㉡수레박회 굵하야 물 속으로서 치미러 밧치드시 올라 붓으며 향독 굵한 기운이 스러디고 처엄 붉어 것출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홍식이 거룩하야 붉은 기운이 하늘을 쐬노더니 이랑이 소릴를 읊히하야 ㉠나를 불러 저기 ㉡물밧출 보라 ㉢웨거늘 급히 ㉣눈을 드리 보니 물밧 홍운을 헤앗고 큰 실오리 갓흔 줄이 붉기 더욱 괴이하며 기운이 진홍 갓흔 것이 촌 촌 나 손바닥 너비 갓흔 것이 그믐밤의 ㉤보는 슷불밧 갓더라. 촌 촌 나오더니 그 우호로 적은 회오리밤 갓흔 것이 붉기 호박 구슬 갓고 몹고 통낭헝기는 호박도곤 더 곱더라

그 붉은 우호로 훌훌 움죽여 도논디 처엄 낫던 붉은 기운이 빙지 반 장 너비만치 반드시 비취며 밤 갓던 기운이 히 되야 촌 촌 커 가며 큰 정반만 헝여 붉웃붉웃 번듯번듯 쐬놀며 적식이 윈 바다회 끼치며 몬져 붉은 기운이 촌 촌 가식며 히 흔들며 쐬놀기 더욱 즈로 헝며 항 갓고 독 갓흔 것이 좌우로 쐬놀며 황홀이 번득여 낭목이 어즐헝며 붉은 기운이 명낭하야 첫 홍식을 헤앗고 텃등의 정반 갓흔 것이 수레박회 갓하야 물 속으로서 치미러 밧치드시을 나 붓흐며 항독 갓흔 기운이 스러디고 처엄 붉어 것출 밧최던 거슨 모혀 소혀터로 드리워 물 속의 풍덩 싸디는듯 시브더라 일식 도요헝며 물결의 붉은 기운이 촌 촌 가식며 일광이 청낭하니 만고 텃하의 그런 장관은 디두할 디 업슬듯 헝더라

114. 위 글에서 중세국어와 달라진 점을 잘못 지적한 것은?

- ① 옛이응 ‘ㅇ’이 소실되었다.
- ② 거듭적기의 표기 방식이 등장했다.
- ③ 주격조사 ‘-가’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 ④ 명사형 어미 ‘-기’가 활발하게 쓰이고 있다.
- ⑤ 재음소화에 의한 표기가 나타난다.

115. 다음 중 모음조화가 파괴된 예로 볼 수 없는 것은?

- ① ㉠나를 ② ㉡물밧출 ③ ㉢웨거늘
- ④ ㉣눈을 ⑤ ㉤보는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 촌 촌 나오더니 그 우호로 적은 회오리밤 ㉠갓흔 것이 붉기 호박구슬 갓고 몹고 통낭헝기는 호박도곤 더 곱더라.

[B] 붉은 기운이 명낭하야 첫 홍식을 헤앗고 텃등의 정반 갓흔 것이 수레박회 갓하야 물속으로서 치미러 밧치드시을 나 붓흐며 항독 갓흔 기운이 스러디고 처엄 붉어 것출 밧최던 거슨 모혀 소혀터로 드리워 물속의 풍덩 싸디는 듯시브더라

[C] 홍식이 거룩하야 붉은 기운이 하늘을 쐬노더니 이랑이 소릴를 읊히 하야 나를 불러 저기 물밧출 보라 웨거늘 급히 눈을 ㉡드리 보니 물밧 홍운을 헤앗고 큰 실오리 갓흔 줄이 붉기 더욱 괴이하며 기운이 진홍 갓흔 것이 ㉣촌 촌 나 손바닥 너비 갓흔 것이 그믐밤의 보는 ㉤스틀밧 갓더라.

[D] 밤 갓던 기운이 히되야 촌 촌 커가며 큰 정반만 헝여 붉웃붉웃 번듯번듯 쐬놀며 적식이 윈 바다회 끼치며 몬져 붉은 기운이 촌 촌 가식며 히 흔들며 쐬놀기 더욱 즈로 헝며 항 갓고 독 갓흔 것이 좌우로 쐬놀며 황홀이 번득여 낭목이 어즐헝며

116. 위 글의 [A]~[D]를 시간 순서대로 맞게 바르게 배열한 것은?

- ① [A]-[B]-[D]-[C] ② [B]-[A]-[D]-[C]
- ③ [C]-[A]-[D]-[B] ④ [C]-[D]-[A]-[B]
- ⑤ [D]-[A]-[C]-[B]

117. ㉠~㉤중 위 글의 창작 시기를 알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단어로 적절한 것을 두 가지 고르면?

- ① ㉠ ② 나 ③ ㉣
- ④ 라 ⑤ ㅁ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홍식이 거룩하야 붉은 기운이 하늘을 ㉡쐬노더니 이랑이 소릴를 읊히하야 나를 불러 저기 ㉢물밧출 보라 ㉣웨거늘 급히 눈을 ㉤드리 보니 물밧 ㉥홍운을 헤앗고 ㉦큰 실오리 갓흔 줄이 붉기 더욱 괴이하며 기운이 진홍 갓흔 것이 촌 촌 나 ㉧손바닥 너비 갓흔 것이 그믐밤의 보는 슷불밧 갓더라. 촌 촌 나오더니 그 우호로 적은 ㉨회오리밤 갓흔 것이 붉기 ㅁ호박구슬 갓고 몹고 통낭헝기는 호박도곤 더 ㉩곱더라. 그 붉은 ㅂ우호로 훌훌 ㉪웁죽여 도논디 ㉫처엄 낫던 붉은 기운이 ㉬빙지 반장 너비만치 반드시 비취며 밤 갓던 기운이 히되야 촌 촌 커가며 큰 정반만 헝여 붉웃붉웃 번듯번듯 쐬놀며 적식이 윈 바다회 끼치며 몬져 붉은 기운이 촌 촌 가식며 히 흔들며 쐬놀기 더욱 즈로 헝며 항 갓고 독 갓흔 것이 좌우로 쐬놀며 황홀이 번득여 낭목이 어즐헝며 붉은 기운이 명낭하야 첫 홍식을 헤앗고 텃등의 정반 갓흔 것이 수레박회 갓하야 물속으로서 치미러 밧치드시을 나 붓흐며 항독 갓흔 기운이 스러디고 처엄 붉어 것출 밧최던 거슨 모혀 소혀터로 드리워 물속의 풍덩 싸디는듯 시브더라 일식이 도요헝며 물결의 붉은 기운이 촌 촌 가식며 일광이 청낭하니 만고 텃하의 그런 장관은 디두할디 업슬듯 헝더라

118. (가)에서는 표기상의 혼동으로 ‘거듭적기(重綴)’가

滿開(만개) : 꽃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등장한다. 그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 흥식 ② ㉡ - 썬노더니 ③ ㉢ - 물밧출
④ ㉣ - 웨거늘 ⑤ ㉤ - 드러

119. 글 (가)에서 다음 중 성격이 가장 다른 것은?

- ① ㉠ - 흥운
② ㉡ - 큰 실오리
③ ㉢ - 손바닥 너비 ㄹ흔 것
④ ㉣ - 회오리 밤
⑤ ㉤ - 호박 구슬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흥색이 ㉠거룩하야 붉은 기운이 하늘을 뛰노더니, 이랑이 소리를 높이 하여 나를 불러, “저기 물 밑을 보라.”

외거늘, 급히 눈을 들어 보니, 물 밑 흥운을 ㉡헤아고 큰 실오리 같은 줄이 붉기 더욱 기이하며, 기운이 진홍 같은 것이 차차 나 손바닥 넓이 같은 것이 그믐밤에 보는 솟불 빛 같더라. 차차 나오더니, 그 우호로 적은 회오리밤 같은 것이 붉기 호박(琥珀)구슬 같고, 맑고 통랑(通郎)하기는 호박㉢도곤 더 곱더라.

그 붉은 우호로 훌훌 움직여 도는데, 처음 났던 붉은 기운이 백지(白紙) 반장(半張) 넓이만치 ㉣반드시 비치며, 밤 같던 기운이 해 되어 차차 커 가며, 큰 쟁반만 하여 불긋불긋 번듯번듯 뛰놀며, 적색(赤色)이 온 바다에 끼치며, 문저 붉은 기운이 차차 가새며, 해 흔들며 뛰놀기 더욱 ㉤즈로 하며, 향 같고 독 같은 것이 좌우로 뛰놀며, 향홀히 번득여 양목(兩目)이 어즐하며, 붉은 기운이 명랑하여 첫 흥색을 헤아고, 천중(天中)에 쟁반 같은 것이 수레바퀴 같아야 물 속으로서 치밀어 받치듯이 올라 붙으며, 향, 독 같은 기운이 스러지고, 처음 붉어 겉을 비추던 것은 모여 소혀쳐로 드리워 물 속에 풍덩 빠지는 듯 싶으더라. 일색(日色)이 조요하며 물결에 붉은 기운이 차차 가새며, 일광(日光)이 청랑(淸朗)하니, 만고천하(萬古天下)에 그런 장관은 대두할 데 없을 듯하더라.

120. 위 글의 밑줄 친 ㉠~㉤을 풀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매우 아름다워 ② ㉡ : 헤치고
③ ㉢ : 처럼 ④ ㉣ : 반듯이
⑤ ㉤ : 자주

1) [정답] ②

[해설]㉠은 뜻을 빌려 쓴 것이고, ㉡은 음을 빌려 쓴 것이다.

2) [정답] ⑤

[해설]향찰은 한자를 빌려 쓰되, 의미를 전하는 부분은 뜻을 빌려 표기하고, 조사나 어미 등의 문법적 요소는 음을 빌려 표기하였다.

3) [정답] ③

[해설] '서동요'는 선화 공주와 혼인하기를 바라는 서동의 소망을 거꾸로 선화 공주가 그런 것처럼 바꾸어 표현하고 있는 노래이다. 이 노래로 인해 서동의 의도대로 선화 공주는 궁에서 쫓겨 나와 서동과 맺어지게 되므로 미래의 일을 예언, 암시하는 노래인 참요로 볼 수 있다.

4) [정답] 只, 良, 古

[해설]의미를 전하는 부분은 뜻을 빌려 표기하고, 조사나 어미 등의 문법적 요소는 음을 빌려 표기하였다.

5) [정답] ②

6) [정답] ㉠은 한자의 음을, ㉡은 한자의 뜻을 빌려 표기한 것이다.

[해설]향찰은 한자의 음을 빌려 표기하는 음차와 뜻을 빌려 표기하는 훈차의 방식이 있다. ㉠은 음차의 방식을, ㉡은 훈차의 방식을 사용하였다.

7) [정답] ③

[해설]'隱'은 보조사로서 문법적 기능을 한다. '乙'도 목적격 조사에 해당한다.

8) [정답] (1): 향찰, (2): 서기체, 이두, 구결

[해설]향가는 우리말 어순에 따라 글자를 배열하여 문장 전체를 표기할 수 있는 향찰로 표기되었으며, 그 밖에 차자 표기로는 서기체, 이두, 구결 등이 있다.

9) [정답] ①

[해설]㉠은 한자의 음을 빌려 표기하였고, 나머지는 한자의 뜻을 빌려 표기하였다.

10) [정답] ①

[해설]㉠은 작품 자체만 놓고 보았을 때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내재적 관점인 반면, ㉡~㉤는 작품 자체만으로는 해석이 되지 않으며 작품 외부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외재적 관점이라 할 수 있다.

11) [정답] (1) 선, 화, 공, 주, 은 (2) '선화공주'라는 화제를 강조하기 위한 주제의 보조사로 사용되었다.

[해설](1)'善化公主主隱'은 오늘날 '선화 공주님은'으로 해석된다. 이는 善(착할 선), 化(될 화), 公(귀인 공), 主(님 주), 主(님 주), 隱(숨을 은)에서 5번째 글자인 主(님 주)를 제외하고는 모두 음으로 읽은 것이다. (2) 마지막 글자인 '隱(숨을 은)'은 '선화공주'라는 화제를 강조하는 주제의 보조사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2) [정답] ④

[해설]배경 설화의 내용을 볼 때 서동의 영웅적 면모가 나타나는 것은 사실이나, '서동요'에서 의식으로서의 성격은 찾아볼 수 없다.

13) [정답] ④

[해설]㉠우리말 어순을 따른다. ㉡신라 시대 4구체 향가이다. ㉢차자 표기로는 우리말 문장을 완벽하게 표기할 수 없다. ㉤당시의 사람들은 한자로 쓴 것을 보고 우리말로 읽었을 것이라 추측된다.

14) [정답] ③

[해설] 한문을 국어의 어순에 맞추어 배열한 것은 서기체, 문장의 일부를 한자를 빌려서 적은 것은 이두, 한문 구절에 토를 달아 우리말 식으로 읽는 것을 구결이라 한다.

15) [정답] ⑤

[해설]앞의 주는 님(주)의 음을 활용한 것이고, 뒤의 주는 님(주)의 뜻을 활용한 표기로 사용되었다.

16) [정답] (1)남 몰래 정을 통해 두고 (2)他, 密, 嫁, 置

[해설]'훈독(訓讀)'이란 한문의 뜻을 새기어 읽는 것으로, '음독(音讀)'과 구분된다.

17) [정답] ④

[해설] 이 노래는 서동이 미모의 공주를 아내로 삼고자 세운 계획에 의해 사용된 동요이므로 '성 풍속도의 타락상'과는 관련이 없다.

18) [정답] ②

[해설] <보기>는 견우노웅의 '현화가'로 수로 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한 목적이므로 서동요와 유사하게 '구애'의 목적으로 불려졌다. 이 노래는 수로 부인이 천 길이나 되는 바닷가 절벽 위에 철쭉이 피어 있는 것을 보고 꽃을 탐내어 종자(從者)에게 누가 꺾어다 줄 사람이 없느냐고 물었을 때, 마침 소를 끌고 지나가던 한 노인이 이 말을 듣고 그곳에 올라가 꽃을 꺾어다 주면서 부른 것이 다.

19) [정답] ②

[해설]㉠은 뜻을 빌려 쓴 것이고, ㉡은 음을 빌려 쓴 것이다.

20) [정답] ⑤

[해설]향찰은 한자를 빌려 쓰되, 의미를 전하는 부분은 뜻을 빌려 표기하고, 조사나 어미 등의 문법적 요소는 음을 빌려 표기하였다.

21) [정답] ③

[해설] '서동요'는 선화 공주와 혼인하기를 바라는 서동의 소망을 거꾸로 선화 공주가 그런 것처럼 바꾸어 표현하고 있는 노래이다. 이 노래로 인해 서동의 의도대로 선화 공주는 궁에서 쫓겨 나와 서동과 맺어지게 되므로 미래의 일을 예언, 암시하는 노래인 참요로 볼 수 있다.

22) [정답] 只, 良, 古

[해설]의미를 전하는 부분은 뜻을 빌려 표기하고, 조사나 어미 등의 문법적 요소는 음을 빌려 표기하였다.

23) [정답] ②

滿開(만개) : 꽃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 24) [정답] ㉠은 한자의 음을, ㉡은 한자의 뜻을 빌려 표기한 것이다.
[해설] 향찰은 한자의 음을 빌려 표기하는 음차와 뜻을 빌려 표기하는 훈차의 방식이 있다. ㉠은 음차의 방식을, ㉡은 훈차의 방식을 사용하였다.
- 25) [정답] ㉢
[해설] '隱'은 보조사로서 문법적 기능을 한다. '乙'도 목적격 조사에 해당한다.
- 26) [정답] (1): 향찰, (2): 서기체, 이두, 구결
[해설] 향가는 우리말 어순에 따라 글자를 배열하여 문장 전체를 표기할 수 있는 향찰로 표기되었으며, 그 밖에 차자 표기로는 서기체, 이두, 구결 등이 있다.
- 27) [정답] ㉠
[해설] ㉠은 한자의 음을 빌려 표기하였고, 나머지는 한자의 뜻을 빌려 표기하였다.
- 28) [정답] ㉠
[해설] ㉠은 작품 자체만 놓고 보았을 때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내재적 관점인 반면, ㉡~㉤는 작품 자체만으로는 해석이 되지 않으며 작품 외부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외재적 관점이라 할 수 있다.
- 29) [정답] (1) 선, 화, 공, 주, 은 (2) '선화공주'라는 화제를 강조하기 위한 주제의 보조사로 사용되었다.
[해설] (1) '善化公主主隱'은 오늘날 '선화 공주님은'으로 해석된다. 이는 善(착할 선), 化(될 화), 公(귀인 공), 主(님 주), 主(님 주), 隱(숨을 은)에서 5번째 글자인 主(님 주)를 제외하고는 모두 음으로 읽은 것이다. (2) 마지막 글자인 '隱(숨을 은)'은 '선화공주'라는 화제를 강조하는 주제의 보조사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30) [정답] ㉣
[해설] 배경 설화의 내용을 볼 때 서동의 영웅적 면모가 나타나는 것은 사실이나, '서동요'에서 의식으로서의 성격은 찾아볼 수 없다.
- 31) [정답] ㉣
[해설] ㉠우리말 어순을 따른다. ㉡신라 시대 4구체 향가이다. ㉢차자 표기로는 우리말 문장을 완벽하게 표기할 수 없다. ㉤당시의 사람들은 한자로 쓴 것을 보고 우리말로 읽었을 것이라 추측된다.
- 32) [정답] ㉢
[해설] 한문을 국어의 어순에 맞추어 배열한 것은 서기체, 문장의 일부를 한자를 빌려서 적은 것은 이두, 한문 구절에 토를 달아 우리말 식으로 읽는 것을 구결이라 한다.
- 33) [정답] ㉤
[해설] 앞의 主는 主(주)의 음을 활용한 것이고, 뒤의 主는 主(주)의 뜻을 활용한 표기로 사용되었다.
- 34) [정답] (1)남 몰래 정을 통해 두고 (2)他, 密, 嫁, 置

[해설] '훈독(訓讀)'이란 한문의 뜻을 새기어 읽는 것으로, '음독(音讀)'과 구분된다.

- 35) [정답] ㉣
[해설] 이 노래는 서동이 미모의 공주를 아내로 삼고자 세운 계획에 의해 사용된 동요이므로 '성 풍속도의 타락상'과는 관련이 없다.
- 36) [정답] ㉡
[해설] <보기>는 견우노옹의 '현화가'로 수로 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한 목적이므로 서동요와 유사하게 '구애'의 목적으로 불려졌다. 이 노래는 수로 부인이 천 길이나 되는 바닷가 절벽 위에 철쭉이 피어 있는 것을 보고 꽃을 탐내어 종자(從者)에게 누가 꺾어다 줄 사람이 없느냐고 물었을 때, 마침 소를 끌고 지나가던 한 노인이 이 말을 듣고 그곳에 올라가 꽃을 꺾어다 주면서 부른 것이다.
- 37) [정답] ㉤
38) [정답] 17 / 11 / 4 / 24 / ㉠, ㉡, ㉢, ㉣ / 상형자 / ㉠, 一, 丨
39) [정답] ㉣
[해설] ㉣는 역설법에 해당한다. (가)에는 역설법이 나타나지 않는다.
- 40) [정답] ㉠
[해설] '많은 병에 얻고자 하는 것은 오직 악물'이라고 했으므로, 화자의 삶의 태도는 안분지족으로 볼 수 있다. ㉠에서도 소박한 삶(보리밥, 풋나물) 속에서도 다른 것을 부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으므로 안분지족의 태도를 엿볼 수 있다.
- 41) [정답] ㉣
[해설] (나) 시에서 시적 화자는 가족과 함께 누리는 한가로운 자연 속의 생활이 비록 가난한 현실이라 하더라도 몸을 추스를 수 있는 악물만 있으면 더 바랄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재의 소박한 삶에 스스로 만족하며 안분지족하는 삶의 자세를 엿볼 수 있다.
- 42) [정답] ㉠여름, ㉡열매
43) [정답] ㉠
[해설] 제비와 갈매기의 유유자적한 모습을 표현한 함련과 자연 속에서 인간의 한적한 모습을 그린 경련의 대구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 44) [정답] 모음 조화, 양성 모음은 양성 모음끼리, 음성 모음은 음성 모음끼리 어울리는 음운 현상
[해설] ㉠은 'ㅁ술ㅎ+을', ㉡은 '강춘+애', ㉢은 '장기판+을', ㉣은 '아들+은'으로 체언에 조사가 결합하는 과정에 모음 조화를 살펴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모음 조화가 철저히 지켜졌음을 파악할 수 있다.
- 45) [정답] 동국정운식 표기가 사라짐, 방점이 사라짐
[해설] <보기>는 '字體'에서 보는 것처럼 동국정운식 표기와 방점이 사용되고 있지만 본문의 시에는 보이지 않는다.
- 46) [정답] ㉣

滿開(만개) : 꽃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 [해설] ㉠에서 보이는 시적 화자의 삶의 태도는 안분지족(安分知足)이다. 이는 산촌 생활에서의 안빈낙도(安貧樂道)를 주제로 하고 있는 ㉡에서 찾을 수 있다.
- 47) [정답] ②
[해설] 이 시와 <보기> 모두 선경후정(先景後情)의 구조를 갖추고 있다. ㉡ <보기>의 “센 머리롤~ 듯도다”에서 과장법을 사용하여 덧없이 늙어 가는 자신의 모습과 그로 인한 고독(孤獨), 우수(憂愁)의 감정을 고조시키고 있다.
- 48) [정답] ③
[해설] ‘듯도다’는 감탄형 어미에 해당된다. 따라서 ‘幽深(유심)듯도다.’는 ‘한가롭구나’로 해석할 수 있다.
- 49) [정답] 겨 집 (아내→계 집)
[해설] <보기>의 단어들은 국어의 의미 변화 양상 중 ‘의미의 축소’를 나타내는 예이다. 이 시에서 ‘겨집’은 ‘아내’의 의미에서 여자를 낮춰 칭하는 말인 ‘계집’으로 그 의미가 축소되었다.
- 50) [정답] ①
[해설] 선경후정, 원근법, 대구법 등의 표현 방법이 사용되고 있으나, 색채 대비는 쓰이지 않고 있다.
- 51) [정답] ④
[해설] ㉡에는 자신의 처지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안분지족의 자세가 드러나 있다. 이와 같이 자연 속에서 안분지족 하는 삶의 자세가 드러나는 시는 ㉡이다.
- 52) [정답] ⑤
[해설] ‘저구맛 모미 이 밧기 다시 므스글 求(구)히리오’라는 표현을 통해 화자는 병이 있으나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53) [정답] ③
[해설] ‘겨집’은 계집아이가 아니라 아내를 뜻한다. 따라서 ‘겨지븐’은 ‘아내는’으로 풀이해야 한다.
- 54) [정답] ⑤
[해설] (가)에서 아내와 아들은 화자를 위해 장기판을 그리고, 화자가 소일할 수 있도록 낚시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화자에 대한 걱정을 담고 있다고 보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
- 55) [정답] ⑤
[해설] 밍궂(어간) + ㄴ(선어말 어미) + 대(어말 어미) → 밍궂ㄴ다 ㉡는 어미(어늘)가 ‘오’로 시작되므로 어간(밍궂)의 ‘ㄴ’이 탈락되지 않는다.
- 56) [정답] ㉡: 장기과늬(장기판), ㉢: 낙술(낚)
[해설] (가)는 하얀 종이 위에 일부러 줄을 쳐서 장기판을 만드는 아내와 바늘을 굳이 구부려 낚시를 만드는 아들의 모습을 통해 경쟁과 탐욕으로 얼룩진 세태를 풍자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 57) [정답] ①
[해설] (가)에서 3행과 4행, 5행과 6행은 서로 대구를 이루고 있다. ㉡에서도 ‘늬다-궂다’, ‘아내-자식’ 사이에 대칭적 의미가 드러난다.

- 58) [정답] ③
[해설] 위 글의 시적 화자는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인간의 의리와 도덕성이 상실된 현실을 개탄한다. ㉢ 임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내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한다. ㉣ 나라를 다스리는 올바른 길에 대해 간언한다. ㉤ 임의 마음이 변한 것에 대해 자책하고 있다.
- 59) [정답] ④
[해설] 자연의 대상을 바라보고 있으나, 자연의 대상에 감정을 투영하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 60) [정답] ③
[해설] ㉠에서 화자는 자연을 물아일체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 가을산을 보고 적막함을 느낌, ㉢ 자연을 삶의 반려자로 여김, ㉣ 자연은 순수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간직한 대상이며, 인간은 그것을 파괴함, ㉤ 세속과 절연된 순수한 삶이 있는 곳으로 봄.
- 61) [정답] (1) 단란한 가정, (2) 서로 물고 헐뜯는 세대
[해설] 두보는 처자를 데리고 난리를 피해 굶주림 속에 곡강(曲江)에 이르렀다. 거기서 그는 집을 짓고 살았는데 그때의 심경을 그린 작품이 바로 ‘강촌(江村)’이다. 세상은 그에게 다시는 기회를 주지 않았고 그는 거기서 너무도 가난한 생활을 했다. 이러한 창작 배경을 고려했을 때 (2)의 해석이 가능하다.
- 62) [정답] ③
[해설] ‘강촌’에는 3-4행, 5-6행이 대구를 이루고 있으며, ‘등악양루’에는 3-4행이 절묘한 대구를 이루고 있다.
- 63) [정답] 현대 국어에서는 한 단어 안에서 양성 모음과 음성 모음이 함께 어울려 모음조화가 파괴된 모습을 많이 보이지만, ㉠~㉢에서는 모음조화 현상이 철저히 지켜지고 있다.
[해설] 중세 국어에서는 한 단어 안에서 양성 모음은 양성 모음끼리, 음성 모음은 음성 모음끼리 어울리는 모음조화 현상이 철저히 지켜졌으나, 현대 국어에서는 이것이 많이 파괴되어 한 단어 안에서 양성 모음과 음성 모음이 함께 사용되는 예들을 볼 수 있다.
- 64) [정답] ㉠ 혼 고비 → 한 굵이가, ㉡ 몫 가운데 → 물 가운데의, ㉢ 조희를 그려 → 종이를 그려, ㉣ 저구맛 모미 → 미친한 몸이
- 65) [정답] ⑤
[해설] <보기>에서 화자는 현실에 대해 안타까워하며 서글픔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비판적이거나. 냉소적인 태도는 찾아보기 힘들다.
- 66) [정답] ④
[해설] <노걸대언해>는 17세기 국어의 모습을 보여준다. 아래 아의 경우, 음가는 16세기부터 문란해져서 18세기 초에 소실되었으며, 문자는 1933년 이후에 소실되었다.
- 67) [정답] ①
- 68) [정답] ②
[해설] ‘-ㄴ다’는 과거 의문형 어미이며, ‘-는다’가 현재 의문형 어미

이다. 그러므로 ‘-나다’가 쓰인 ‘빅혼다’는 2인칭에 사용되는 의문형 종결어미는 맞지만, 현재형이 아닌 과거형이다.

69) [정답] ⑤

[해설] ‘노걸대언해’는 여러 차례 우리말로 번역되어 우리말, 특히 그중에서도 구어(口語)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게 해 주는 귀중한 자료이다.

70) [정답] 므슴 글을 강흐논다 / 의문형 어미 ‘-뇨’는 1,3인칭 주어에 호응하는 의문형 어미이므로 2인칭 주어에 호응하는 의문형 현재 시제 어미 ‘-논다’로 고칠 수 있다.

71) [정답] ① 글씨 쓰기, ② 한시 짓기, ③ 글 읊기, ④ 글 외우고 설명하기

[해설] ‘每日 이른 ~ 글을 강흐노라’에서 중국어 학습의 과정이 드러나 있다.

72) [정답] ③

[해설] 이 글에서는 거듭적기(예:얹피서)가 나타나고 끊어적기는 살펴볼 수 없다.

73) [정답] ③

[해설] ‘홍식이’는 거듭적기가 아니라 끊어적기가 확대된 예에 해당한다.

74) [정답] 음운 : 모음 조화가 파괴됨, 표기 : ㅇ이 쓰이지 않음

[해설] ‘혹당의서>혹당익서’로 모음조화가 파괴된 모습이 보이고, ‘혹당의서>혹당익서’에서 ㅇ이 쓰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75) [정답] ③

[해설] ㉠ ‘좌’는 과거 시제 평서형 종결 어미이다. ㉡의 ‘노라’는 1인칭 주어에만 쓰이는 평서형 어미이다.

76) [정답] 누구에게

[해설] ‘누손디’는 ‘누(누구) + | 손디’로 분석할 수 있는데, ‘| 손디’는 ‘에게’라는 뜻의 여격 조사이다. 따라서 현대어로 풀이하면 ‘누구에게’가 된다.

77) [정답] 의손디, | 손디, 피

[해설] 사람의손디 : 사람+의손디, 누손디 : 누+| 손디, 스승님씩 : 스승+님+씩

78) [정답] ①

[해설] 위 글은 17세기 근대 국어의 모습을 보여 주는 자료로, 7종성법이 적용되었다. 8종성법의 종성은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이지만, 7종성법에서는 ‘ㄱ, ㄴ, ㄹ, ㅁ, ㅂ, ㅅ, ㅇ’만 종성에 쓰인다.

79) [정답] ④

[해설] ‘도요’는 ‘조요(照耀)’, 밝게 비쳐서 빛남이라는 뜻이다.

80) [정답] 평서문 : ㉠,㉡, 의문문 : ㉢,㉣,㉤

[해설] ㉢,㉣,㉤은 의문형 어미를 사용한 의문문이며, ㉠,㉡은 평서형 어미를 사용한 평서문이다.

81) [정답] ④

[해설] ㉣‘혹당의서’의 올바른 현대어 풀이는 ‘학당에서’이다.

82) [정답] ⑤

[해설] ‘나’는 소학, 논어, 맹자를 배우고 있는 입장이며, 자신보다 어린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83) [정답] ㉦글씨 쓰기, ㉧시구 짓기

[해설] ‘노걸대언해’를 현대어로 풀이하면 ‘서품쓰기’는 ‘글씨쓰기’, ‘년구하기’는 ‘시구 짓기’로 해석할 수 있다.

84) [정답] ③

[해설] 이 글에는 중국어를 배우는 학습 일과만 나와 있고, 중국어를 배우는 이유는 언급 되어 있지 않다. 또한 이 글을 통해 17세기 중세 국어의 중철표기, 모음조화 파괴, 7종성법 표기 등을 확인할 수 있다.

85) [정답] (1) 내가 중국 사람에게 글을 배웠으니 이런 까닭으로 조금 중국말을 아노라. (2) 글 배우기, 글씨쓰기, 시구 짓기, 글 읊기, 강하기 (이 중 3가지만 쓰면 정답 인정)

[해설] ‘每日 이른 새배 니러 學堂의 가 스승님의 글 빅히고 學堂의 서 노하든 집의 와 밥먹기 뚝고 또 혹당의 가 서품쓰기 하고 서품쓰기 하고 년구하기 하고 년구하기 하고 글읊기 하고 글읊기 뚝고 스승 얹피서 글을 강흐노라.’ 부분이 학습 방법에 해당한다.

86) [정답] ⑤

[해설] ‘엇디,무슴’등과 함께 쓰이는 의문사 의문형 종결어미는 ‘흐뇨’이고, 2인칭 주어와 함께 쓰이는 의문형 종결어미는 ‘-논다’이고, 평서형어미는 ‘-노라’이다.

87) [정답] ①③

[해설] ㉠큰 실오리 : 해가 떠오르기 전의 붉은 기운, ㉡낭목이 : 두 눈이, ㉢도요하며 : 조요하며, 밝게 비쳐서 빛나며

88) [정답] ⑤

[해설] ‘저기’에서는 구개음화 현상이 나타났으나, ‘턴둥, 도요하며, 턴하’ 등에서는 구개음화가 적용되지 않은 표기이다.

89) [정답] 1) 거듭적기, 2) ‘물밋출’에서 ‘밋출’은 원래 ‘밀+울’인데 이 ‘ㅌ’받침을 거듭적어서 표기했다.

[해설] ‘물밋출’의 원래 형태는 ‘물+밀+울’로 분석할 수 있다. 여기서 ‘물’은 ‘물’을 의미하는 명사로, 원순모음화가 적용되는 않은 형태이다. ‘밀+울’에서 ‘밀’의 받침 ‘ㅌ’이 거듭적기되어 ‘밀+툼’이 되었고, 여기서 ‘밀’은 7종성법에 의해 ‘밋’으로 바뀌었다. 즉 ‘물밋툼’이 되는데, 여기서 과도한 구개음화가 적용되어 ‘ㅌ’이 ‘ㅌ’으로 바뀌면서 ‘물밋출’로 나타난 것이다. D에 들어갈 말은 ‘거듭적기’이므로, ‘밀’의 받침 ‘ㅌ’이 거듭적기 되었음을 설명하면 된다.

90) [정답] ②

[해설] ‘밧치드시’는 거듭적기가 쓰이지 않았다.

91) [정답] ③

[해설] ㉢‘해앗고’는 ‘해치고’라는 뜻이다.

92) [정답] 회오리밤, 큰 정반, 수레박회

93) [정답] ④

[해설] '곤훈'이 '긔훈'으로 표기된 것은 사잇소리가 아니라 받침 'ㄷ'이 7종성법에 의해 'ㅅ'으로 표기된 것이다.

94) [정답] ④

[해설] '묘요긔며'는 '조요(照耀)'로 '밝게 비쳐서 빛난다'는 의미이다.

95) [정답] ① - ㄷ, ② - ㄷ, ③ - ㄷ, ㄷ, ㄷ

[해설] ㄷ는 끊어적기의 예이며, ㄷ는 거듭적기, ㄷ, ㄷ, ㄷ는 모음 조화가 파괴된 예에 해당한다.

96) [정답] ④

[해설] 근대 국어에서는 모음으로 끝난 체언 뒤에서 주격 조사 '가'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주격 조사 'ㅣ'나 '이'가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중세 국어이다.

97) [정답] '△'이 소실되었다.

[해설] 중세 국어에서는 '처엄'으로 쓰였을 것이 근대 국어에는 '△'이 소실되어 '처엄'으로 표기되었다.

98) [정답] ①

[해설] 위 글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내용이 구성되어 있긴 하지만 계절적 배경을 알 수 없다. 그러나 <보기>는 면양정의 아름다운 겨울 경치를 표현하고 있어서 계절적 배경을 알 수 있다.

99) [정답] ④

[해설] 이 글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재를 취하여 친근감을 느끼게 한다.

100) [정답] ㄷ 께, 나는 선물을 할머니께 드렸다. ㄷ 보다, 너보다 내가 더 빠르다.

[해설] ㄷ는 여격 조사로 '~께'로 풀이할 수 있다. ㄷ는 비교 부사격 조사로 현대어의 '~보다'로 풀이할 수 있다.

101) [정답] ③

[해설] (나) 글은 해돋이를 보면서 자연경관에 대한 아름다움을 예찬하고 있다. ③도 눈 덮인 강촌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다.

① 자연물과 인간사를 대비시켜 병자호란의 치욕에 대한 비통한 마음을 드러냄, ② 근면한 농사일과 상부상조해야 함을 드러냄, ④ 봉선화를 의인화하여 규중에서의 인연을 드러냄, ⑤ 임에 대한 적극적 사랑의 의지를 나타냄.

102) [정답] ①

[해설] '드러'는 거듭적기의 예가 아니라 이어적기가 잔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103) [정답] ③

[해설] 해를 비유한 것은 ㄷ, ㄷ, ㄷ이고, 해 주변의 기운은 ㄷ, 바다에 비친 해의 기운을 비유한 것은 ㄷ, ㄷ, ㄷ이다.

104) [정답] 낚히, 붓흐며

[해설] <보기>는 재음소화에 대한 설명으로 이 글에서 재음소화의 예에 해당하는 것은 '낚히', '붓흐며'가 있다.

105) [정답] ③

[해설] ㄷ, ㄷ, ㄷ는 모두 '해'를 비유적으로 나타낸 말이다. ㄷ'호박

구슬'은 해의 붉은 밝기를 비유적으로 나타낸 것이며, ㄷ'소 혀'는 해 주변의 붉은 기운을 비유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106) [정답] ④

107) [정답] ③

[해설] ① 음가가 소실된 음운인 '·'가 사용되었다. ② '홍식이, 귀운이, 것이, 물 속으로셔'와 같이 끊어적기가 확대되었다. ④ '뛰노더니, 씨치며'와 같이 첫 소리에 합용병서가 사용되었다.

108) [정답] ③

109) [정답] ③

[해설] '해'를 빗댄 표현으로는 '회오리바람, 큰 쟁반, 수레바퀴'이다. 3번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해 주위의 '붉은 기운'을 나타낸 말이다.

110) [정답] ③

111) [정답] ③

[해설] '붉은'은 끊어적기가 사용된 예이다. 소리나는 대로 표기하는 이어적기가 사용되었다면, '붉근'으로 표기되었을 것이다.

112) [정답] ①

113) [정답] ④

114) [정답] ③

115) [정답] ④

116) [정답] ③

[해설] [C]에서는 해가 떠오르기 전, 수평선에 비친 빛 줄기를 '큰 실오리'에 빗대어 표현하였다. [A]에서는 막 나타나기 시작한 해를 '회오리바람'에 빗대어 표현하였다. [D]에서는 [A]에 나타난던 '밤 굶던 귀운이 희되야 촛초 커가며' '큰 쟁반'만한 해를 비유하고 있다. [B]에서는 '쟁반 굶던 것'이 '수레박'만큼 커진 해를 비유하고 있다.

117) [정답] ①, ⑤

[해설] 근대국어 시기에는 7종성법이 적용되었다. 즉, 8종성법의 'ㄷ'과 'ㅅ'이 발음의 차이가 없어 'ㅅ'으로 통일하여 표기하였다.

118) [정답] ③

119) [정답] ④

120) [정답] ③